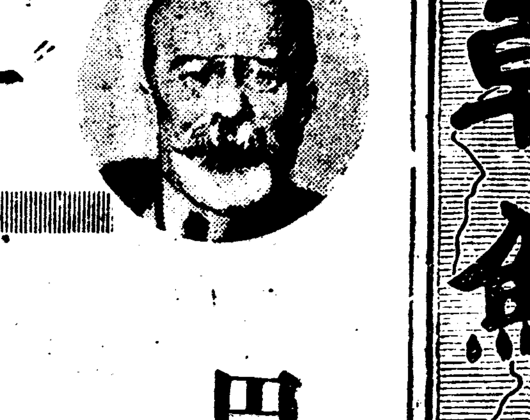
十日發行 (第一版) 昭和九年十月十一日 (木曜日)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日刊) 第四千八百一號 【一】

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유國皇帝와 佛外相의 慘變

『마르세이유』에서

(寫眞은 凶彈에 逝去한 바르투氏)

巴里御訪問途中에 狙擊되어 遂崩御

바르투佛外相도 凶彈에 絶命

暗殺犯人은 現場에서 被殺

【말세이유九日發至急聯合報】 『유고슬라비아』 國皇帝 『알렉산더』 一世는 九日 佛蘭西外相 『바르투』 氏를 비롯하야 官民多數 歡迎裡에 上陸되야 市內中央 『데라부류제』에 이르러슬때에 歡迎하는 群衆中에서 數人의 兇漢이 國王을 目標로 繼續的으로 發砲하야 數發은 國王에게 命中되야 瀕死의 重傷을 受하고 國王은 群衆의 警戒裡에 直時로 縣廳에 擔人되엿스나 이미 意識이 不明되여 따라 쪼차간 醫師들의 應急治療한 効力도 업시 드듸여 崩御하엿다

享年은 四十六歲이다

(寫眞은 알렉산더皇帝及皇妃)

【마르세이유九日發聯合至急報】 『알렉산더』 一世陛下의 遭難으로 말미암아 『말세이유』 全市는 名狀할수업시 混亂狀態에 陷하엿다 『바르투』 外相도 이판에 兇彈을 바다 重傷을 當하엿다

【마르세이유九日發聯合至急報】 兇彈을바든 佛蘭西外相 『바르투』 氏는 『알렉산더』 一世薨去後 뒤를이어 絶命하엿다

【마르세이유聯合至急報】 『유고슬라비아』 國王 『알렉산더』 一世陛下는 巴里 御訪問途中 九日 『말세이유』에서 어떤者에게 狙擊되여 薨去하엿는바 狙擊者는 現場에서 射殺되는 同時에 徒黨으로 指目되는 者들은 全部 逮捕되엿다

【말세이유九日發】 犯人은 港上에떠러져꺼러졋스나 그대로 執拗히 短銃을 亂射하엿슴으로 多數의 死傷者를 내여 警官一名은 死亡하고 六名은 重傷을 負하엿다

慘劇의 鮮血로 물드린 말세이유市

暗殺當時의 情景

『사라에보』事件과 酷似

【電通말세이유九日發】 暗殺은 一九一四年 사라에보에서 墺太利皇太子 팔리난드殿下가 쎌비아靑年에게 狙擊된것과 酷似하다 凶漢은 自動車의 泥除에 올나 車窓으로부터 連發短銃을 겨누고 全然손도 다을만한 近距離에서 國王과 佛外相을 狙擊하엿다 알렉산더陛下는 입으로부터 피를 흘리며 무엇을 말하엿스나 들을수 업섯다 佛外相은 右腕에 銃彈을 맛고 赤血에 물드럿스나 놀라운 氣力으로써 이러나 陛下를 自動車의 좌석에 누우라고 말하엿다

國王과 外相은 直時現場에서 應急手當을 바덧스나 國王은 希望이 업서 事件突發直後 九日午後四時十五分에 薨去하시고 바르투外相은 一時蘇生하엿스나 同四時四十五分에 드듸여 逝去하엿다

【電通말세유九日發】 犯人은 御自動車의 泥除에 뛰여올나 連發短銃으로 國王과 外相을 向하야 發射하엿는데 그때 御自動車의 運轉手가 勇敢이 空拳으로 犯人을 틀니쳣슴으로

暗殺決行動機는 獨裁政治에의 不滿

犯人은 유國靑年黨員

【電通말세유九日發至急報】 유고슬라비아國王及 佛國外相의 暗殺犯人은 크로아지아系의 유고슬라비아國靑年實業家로 페트로스·케레마(?)라고한다 알렉산더一世陛下의 獨裁政治가 크로아지아系의 國民의 利益을 無視한다는 見解에서 祖國의 秘密結社의 靑年一派와 暗殺을 約하고 潛行하야 佛蘭西까지 가서 決行한것이다 그리고 其外에 靑年共犯者가 一人이 잇다

【電通말세유九日發至急報】 유고슬라비아國王及바르투 佛外相의 暗殺犯人은 유고슬라비아의 政治組織에 反對하다가 追放된 靑年黨에 屬하는 壯漢으로 兇行後 警官隊와의 亂鬪中 彈丸에 마저 現場에서 卽死하엿다

국럼비아國 帝國公使館開館

【電通東京電話】 新任公使 岩手嘉雄氏로부터 八日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同公使는 五日 콜럼비아國首府보고타市에 着任하는 直時로 公使館開館手續을 完了하엿다

生前의 功績으로 『바』外相은 國葬

一個月間全國에 服喪令을 發布

巴里市半旗로 吊意表示

【巴里十日發聯合】 佛國政府는 九日深更緊急閣議를 開하고 알렉산더一世陛下의 御遭難에 深甚한 吊意를 表明하기 爲하야 一個月間 國喪에 服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外相바르투氏 生前의 功績에 鑑하야 國葬의 儀式을 執行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旨를 公表하엿다 一世陛下가 佛蘭西에서 御遭遇한데 對하야 깁히 吊意를 表하는 同時에 佛國의 安全保障을 爲하야 最近顯著한 功績을 나타내인 바르투外相의 死를 悼하는것이라고 解釋된다

【電通九日發】 佛國政府는 깁히 吊意를 表하기 爲하야 九日全國에 服喪令을 發하엿다

【電通말세유九日發】 유고슬라비아國王陛下의 御遭難으로 巴里市內는 九日午後五時各戶에 半旗를 揭揚하고 吊意를 表하엿다 右는 佛國과 特히 親交關係에 잇는 유고슬라비아國王 알렉산더

外相은 首相兼攝

【歐洲巴里九日發至急報】 佛國內閣은 九日緊急閣議를 開한 結果 바르투外相 逝去後 外相의 職은 一時 두메르그首相이 兼攝하기로 되엿다

均衡外交의 權化 바外相略歷

◇最近의 花形的 活動

【巴里十日發聯合】 不幸히 兇變으로 逝去한 바르투外相은 本年七十二歲로 佛國非常時의 外交再建에 東奔西走하야 자리가 더울틈이 업스리만치 政治的努力을 繼續하여왓다 때맛침 獨逸은 나치스의 强硬外交에 刺戟되야 再次 積極的政策을 取하야 다시 波瀾이 일어나게 되엿는데 이러한 時期에 外相으로 就任한 바르투氏는 伊太利와의 握手를 圖하는 때이엿다 바르투外相은 波蘭과 小協商國을 訪問하고 그 結束을 强化하고 小協商國首腦와 同盟을 새로히하여 獨逸을 全然孤立시키는 外交에 成功하엿다 佛國의 外交는 首相과의 會談에서 兩國의 提携에 努力하는 한편 獨伊의 接近을 顯著하게되자 直時 倫敦으로 赴하야

外交는 獨佛 및 伊間의 親善工作에 努力하야 歐洲의 外交는 多少複雜하여 歐洲의 外交를 爲하야 그리고 全國民의 人望을 끌고 잇는 外相은 歐洲의 安全保障을 爲하여 이바지하여왓다 佛國人은 그를 알고잇는 多角的外交家, 愛國家로도 알녀잇고 政治에 出馬하야 一八八九年下院議員에 當選된 以來 四十餘年間 政界에 活躍하야 土木大臣, 內相, 法相을 歷任하고 一九一三年에는 首相의 印綬를 帶하엿섯다 一九二二年 주네브會議에 佛國政府의 首席代表로 出席하야 得意의 雄辯으로 常時의 露國外相치체린氏와 對抗한것은 有名한 이야기다 본은 그의 代表的 著述이다 그리고 가르노·愛書家로도 알녀잇고

米海軍의 半을 收容할 大海軍根據地計畫

日本의 均等要求에 對抗策?

『델레그래프』紙의 指摘

【倫敦九日發聯合】 九日의 델레그래프紙는 米國이 알류미앤群島의 닷치하바에 大海軍의 根據地計畫을 有한點을 指摘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米國海軍長官은 닷치하바에 米國海軍의 半을 收容할수 잇는 北太平洋의 新海洋 다고도 稱할 大海軍根據地建設計畫에 對하야 이미 루즈벨트大統領의 內認可를 得하고 잇는데 米國海軍은 此로써 日本의 比率均等要求에 對抗할 魂膽으로 생각된다

吉田大使

歐米出張正式發令

【東京電話聯合】 廣田外相은 吉田大使를 代理하야 歐米各國에 駐在하는 日本大公使를 歷訪케하고 日本政府의 方針을 傳達케하기로 되엿는데 九日正式으로 左와 如히 歐米各國에 出張을 命하엿다

特命全權大使 吉田茂 歐米各國에 出張을 命함

同大使는 來十二日 東京을 出發할터이다

閣議決定不徹底라고 最後까지 抗爭

關東廳員의 決意强固

【大連九日發聯合】 在滿機構改革問題에 關하야 九月의 閣議의 決定에 對하야 關東廳全職員은 未字句가 不徹底하야 諒解하기 困難하다 警察部長은 名實共히 憲兵司令官의 兼任으로하지 안코 文官으로 當케하지 안는 限 斷乎主張貫徹에 邁進할 따름으로 內閣의 瓦解도 不得已하다하야 政府軍部의 反省과 徹底的讓步에 多大한 期待를 부치고 잇다

行政事務局長은 拓務系統에서

【電通東京電話】 滿洲行政事務局長에는 拓務系統으로부터 選任하라는 意見이 各方面으로부터 有力하게 擡頭하고잇는데 拓務省의 北島殖産, 生駒管理의 兩局長의 呼聲이 가장 高調되여잇다

宇垣總督會寧到着

【會寧發聯合】 九日午後五時二十五分 京城을 出發한 宇垣總督은 十日朝 城津驛에서 富永咸北知事의 出迎을 受하야 一路北行 午前十時半 會寧에 到着하얏다

國論의 沸騰憂慮

御遭難의 報道一切禁止

『유』政府緊急閣議

【벨그라드九日發聯合】 國王 알렉산더一世兇變의 報道를 接한 유고슬라비아政府는 곳 大混亂을 呈하야 卽夜에 緊急閣議를 開하고 對策을 鳩首協議하엿다 但政府는 國論의 沸騰을 憂慮하고 御遭難의 報道를 一切禁止하고잇슴으로 벨그라드市民은 아직 國王御遭難의 報를 아지못하고 市中은 平常대로 繁雜을 呈하야 街頭에는 라듸오의 放心한 音樂이 흘러고잇다 諸外國과의 電信電話도 一切禁止되여 政府當局의 通報通信만이 許可되여잇는 狀態이다

아陛下御閱歷

【電通東京電話】 말세유港頭에서 兇變으로 崩御하신 유고슬라비아國王 알렉산더一世陛下는 千八百四年에 對하야 最初의 獨立의 旗幟를 드는 쵸, 페드르빗치王의 正統으로 千八百八十八年十二月十七日 몬데네그로首府 체치니에서 페트르王陛下의 第二子로 御誕生, 一九〇九年 皇太子조르주殿下의 王位繼承權抛棄로 皇太子의 地位에 卽하고 世界大戰勃發과 同時에 攝政에 就任하엿고 一九一八年秋 세르비아軍이 불가리아獨逸聯合軍을 擊破하엿슬時에는 세르비아의 解放主로 國民의 絶對的愛信은 比할데가 업스리라고 想像되다 享年御齡四十六

歲諸과 信任을한몸에모으고잇섯다 一九二一年八月十六日父王 페드르一世陛下의 崩御後 쎌·크로아트·스로베니 聯合王國의 王位에 卽하야 諸强國勢力의 角逐場인 빨칸半島에서 巧妙히 佛國과 提携하야 內治外交에 手腕을 나타내이엿 一九二九年國號를 유고슬라비아라고 改稱하는 同時에 國內의 反對派를 一掃하기 爲하야 獨裁政治를 行하야 一九二九年九月에 發布한 憲法으로 王制가 制定되엿다 趣味로는 古金과 브로지의 蒐集에 熱中하며 이方面에는 學者와 比肩하엿다 한다 今回의 慘事는 全然意外의 것으로 平素 國民의 信望을 한몸에 모으고잇섯다

皇太子피터殿下 新國王으로 發表

未成年임으로 執政三名任命

【電通巴里九日發】 유고슬라비아國王 알렉산더一世陛下의 御兇變으로 皇太子피터殿下가 新國王으로 發表되리라 하며 皇太子殿下는 十一歲의 少年이라 한다

【電通巴里九日發】 유고슬라비아國王 알렉산더一世陛下의 御年十一歲이되는데 皇太子피터殿下는 御年十三歲임으로 議會는 國王의 崩御에 伴하야 同國憲法에 依하야 後繼國王을 指名하게되엿는데 同國憲法에 依하면 國王이 成年에 達하기까지 側近顧問의 任에 當할 三名의 執政을 任命하기로 되엿다

民族的反感이 原因

確證된不可思議의 옛傳說과

代代로凶變맛난세르비아王

【벨그라드十日發聯合】 세르비아國王은 房에서 別世치안는다는것은 歐洲에 잇서서 不可思議한 傳說로되여 國王이 流血後永眠하고 또는 暴徒에게 殺된다는 運命으로되여잇다는데 今回알렉산더一世의 兇變으로 右傳統은 確認되엿다 佛國外相바르투氏의 羅馬訪問前에 알렉산더一世가 特히 巴里를 訪問한것은 最近伊太利, 유고슬라비아兩國間의 緊迫된 關係를 打開하기 爲하야 케들제當局과 協議하고 何等和協方策을 發見할 目的에서 나온것이다 때바로 國王이 佛國本土에서 兇變을 遭遇하게되엿슴으로 直時佛伊兩國及全佛유兩國間에 重大한 結果가 생기지 안을가 念慮되는것은 當然하나

事實유고슬라비아國內에 잇서서 解散하고 獨裁制를 實施하엿다 其後 一九三一年九月 獨裁制를 解消하고 新憲法을 發布하야 議會政治를 實施하엿스나 種種의 民族鬪爭은 依然繼續되여 세르비아人과 크로아트人의 鬪爭의 發現이며 바르투外相은 突然히 兇變을 當한것이 實相이다 元來유고슬라비아國內는 세르비아 크로아트, 슬로베니아 세民族으로 되여잇서 人種的으로는 極히 接近하여잇음에도 不拘하고 宗敎思想等의 相違로 恒常暗鬪가 끈치는 사이가 업섯다 유고슬라비아國內에서는 暗殺衝突이 連續的으로 이러낫다 特히 一九二三年六月下院에서 세르비아黨員과 크로아트黨員과의 衝突이 이러난 當時 크로아트人과의 對立은 極度로 激化되여 알렉산더一世는 一九二三年月議會를 七會되다

세르비아民族의 橫暴에 對한 不滿은 結局 알렉산더一世의 治世에 不滿하야 크로아트人인 犯人의 手로 兇殺된 것이라고 보고잇다 暗殺의 機會를 엿보고잇든바 今回國王의 巴里公式訪問을 조흔 機會로 말세유에서 撃한것은 업스리라고 觀測되나 유고슬라비아國內의 紛糾는 이 兇變으로 더욱 激化되리라고 觀測된다

英米間一致는困難

英米提携說과 海軍當局觀測

【電通東京電話】 海軍軍縮豫備交涉再開에 關聯하야 最近頻繁히 英米의 提携說, 日本이 華府條約을 廢棄하면 英米가 提携하야 日本이 가장 꺼리는 政治問題를 提案한다는 英米의 共同動作說이 傳하야 日本國民으로하여금 英米或은 英米佛伊가 聯合하야 日本에 當하지나 안을가하는 憂慮를 抱懷케하는데 對하야 日本海軍當局은 英米共同動作說은 米國이 自己의 立場을 有利하게 展開식히기 爲하야 故意로 親英的宣傳을 行하는 것으로 兩國間에는 左와 如한 利害關係가 存在하고 잇슴으로 決코 共同動作을 取하게되지 안으리라는 觀測을 下하고 잇다

一、英國은 歐洲平和를 維持하기 爲하여는 歐洲에 對하야 威勢를 保持하여야 할것이다 卽反對하면 經濟封鎖를 斷行한다는 態度를 恒常取하지 안으면 歐洲의 平和는 確保되지 못할것이다 此는 英國의 傳統的 政策으로 世界大戰時에도 이 政策을 實行하야 獨逸을 經濟封鎖하엿다 그때문에 英國에는 世界第一의 海軍力이 업스면 안되다 그리고 現在는 實際世界第一의 海軍國이다

一、그런데 一九三九年에는 米國과 거의 均等勢力으로 되여 英國은 實質的으로 世界第一의 海軍國이 못되게됨으로 歐洲에 對한 權威가 서게되지 못한다

一、그러면 何故로 米國이 英國과 均等勢力을 希望하지 안느냐 하면 歐洲의 二國이 戰爭할 境遇 米國은 其兩國과 自由로 貿易하야 利益을 엇는다는 것이 米國의 傳統的政策으로도 交戰國은 米國利得에 妨害치말나고 함으로 이것이 米國海洋의 自由이다 現在米國은 世界戰爭時 英國에 對하야 獨逸에 多額의 軍需品을 賣渡하야 利益을 어드려하엿스나 英國의 海軍에게 妨害된일이 잇서서 이에 憤慨하야 어떠케해라도 米國海軍은 英國海軍과 均等의 兵力을 갓지 안으면 海洋의 自由를 擁護할수 업다는것을 痛感하고 戰爭後英國海軍의 努力에 衰退하여슬때 條約에 依하야 目的을 達成한것이다

一、英國은 戰後數年間國內的復興을 爲하야 一時米國에 均等한 兵力을 許容하엿스나 그것은 米國海軍의 情勢로 보나 條約期間內에는 到底히 條約量까지의 海軍力이 出來擴充되지 못할것을 看破하고 積極態度를 表示한것으로 實質的으로는 世界第一의 海軍國인 希望을 放棄한것이 안이다

佛內閣臨時閣議

善後策을 協議

大統領首相等마市急行

【電通말세유九日發】 佛國內閣은 말세유大兇變의 報를 接하고 卽時閣議를 開하고 善後策을 協議하엿다

【電通巴里九日發】 佛國政府는 九日臨時閣議를 開한 結果 르브랑大統領두메르그首相以下閣員代表는 直時特別列車로 準備하야 말세유로 向하엿다 此는 알렉산더一世陛下의 靈柩가 佛國內에 잇는동안 通夜에 列席하기 爲함이라한다 그리고 靈柩의 御歸國에 際하여는 佛國의 巡洋艦이 派遣될 豫定이다

人事·集會

▲松岡正男氏 (大阪每日新聞社編輯顧問) 入京人事次來社

▲宋相錫氏 (朝鮮耶蘇敎長老會牧師) 五十年史發行準備次來社

八面鋒

◇유고슬라비아國王, 突然佛國馬耳世維港에서 狙擊되야 崩御.

◇同時에, 佛外相바르투氏도까닥없는 彈丸에 넘어지고말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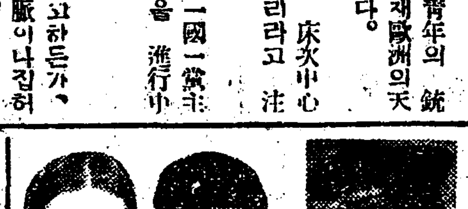
◇原因은 아즉不明하나, 自由主義者의 所行이라고.

◇二十年前 쎌비아靑年의 銃聲이 聯想되야, 엇재歐洲의天地가뒤숭숭한듯하다.

◇臨時議會를압두고 床次中心의 新黨이생겨나리라고 注目되는이지웅.

◇政友의久原氏가 一國一黨主義로 久遠한計畫을 進行中이라고.

◇政治는 有機體라고하든가, 이친구들이 정말脈이나집허보고하는醉酊인가.



巡查看守(講義錄)夜學도開始

巡查看守志願者는 本會講義錄卒業에 依하야合格保證○一個月의速成科及三個月의普通科로責任付養成會則即送 最近巡查試驗問題集一冊無料提供(但入會者에限하야)

京城永樂町二ノ二 電本三〇三〇 朝鮮警務學會

新學期開始

速記學生徒募集(講義錄)

一、自宅學習에 僅少한會費와短期間으로 確實한會社員과銀行員에 資格을得함

一、三個月卒業으로 最新高等速記術敎授

一、男女不問本會卒業證一枚로就職先歡待(規則書進呈要二錢切手)

京城府永樂町二ノ二 電話本局三〇三〇 第一高等速記學會

高血壓에 오세로 オセロ

大阪株式會社柴田商店滿鮮總代理店

原料產地直輸入

원료물감

原料卸商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 電話光二八番 振替京城八〇四番

치과

林榮齒科醫院

광화문우편국앞(벽각아래모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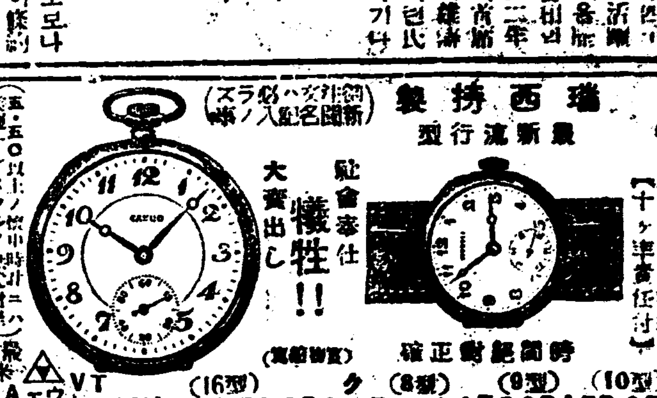
齒科醫師 林榮俊

投賣急告

新品同樣·新價四分の一

瑞西携帶 最新流行型

社會奉仕 犧牲!! 大賣出し



時間絶對正確

クローム側腕卷時計 (新米腕皮付)

クローム側懷中時計 (クサリ付)

[illegible]

東京市中野驛前 今本合名會社時計部 振替東京九九八六番

一般時勢下落不拘 公設市場은또引上

한가마니에삼십오전식이올라 錯誤된今日의米價

천정을모르고 올라가는 물가―세민의부억을 은근히위협하는물가가 그중에도쌀값은 공설시장소매가격의 인상을보인지 보름이못되는 금십일에이르러 다시올리지안흐면안될 부득이한지경에 이르럿다 판지(阪神)의시세가 올랏다는 영향을바다서 현미(玄米)시세가 계속앙등하든중에 다시 일본내지의감수예상이발표된이래로 현미시세는 다시 일단의앙등을보여 신솔미의출회(出廻)가 아즉도적어서 전번에 이십사전(錢)식을 하든것이 이십팔원까지 하게되얏슴으로 경성부내의공설시장의 소미가격은 십일부터 매「키로」에다시 오리식 올라서 다마금(多摩錦)등등 백미한「키로」에 이십일전오리하든것을 이십이전으로, 일등백미 이십전하는것을 이십전오리로, 올리여 결국한가마니에 삼십오전식이 올른셈이다 이모양으로 쌀갑이올으기만하야 적은월급생활 하는사람의생활에는 큰곤난이잇다 그러나저기, 정미, 현물들은 오늘모다저락되엇다

入學試驗本位의 初等教育을矯正

中等校入學試驗制對策을 學務局에서對策研究

례년말성만흔 중등학교 입학시험문제에대하야 지난오일 학무국에서는 교유관계자 이십이명을총독부에 모아가지고 중등학교입학시험 대책에대한 협의를하엿다 회의의내용은 현재의 중등학교입학시험제도는 불합리 한것임으로이것을철폐하는것이원측이겟지만 현하조선내의 중등교유긔관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움으로신동한 성안은엇지 못하엿스나 현재보통학교에서는국어와산술에치중한교수를하기때문에다른학교의성적은일본내지의초등학교생에비하야 저렬한 상태임으로 금후는보통학교의 평준한교수과목을 보편적으로하는 동시에 입학시험의과목도 늘려가지고서 입학시험을통하야 아동의초등교유의 보편적지식을 알도록하자는 의견이 유력하엿다 다시오는십삼일에 회합하야 재토의를할터이라한다

所見表를重視 試驗도並行

교유관계자와연구한뎌이나 學務局의意向은如此

중등학교 입학시험대책에 대한 교유관계자의 협의내용은 전긔와갓거니와 이에대한 학무국의의향은 대체다음과갓다 한다 입학시험은 입학지원자의 대체의성적을 알기위한 참고로하고주로 보통학교장의 소견표(所見表)와체격검사서에 치중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것이 비교적현하 교육긔관의정도로서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하야 다시교육관계자의 의향을 청취한후실시할의향이라한다 그러나 이것은 드리혀시험제도를 두어두어서 교장의소견표에 좌우되야 혹은정실관계에 억매워자미롭지못한 폐단을 내일념려도잇스니만치 비난하는 소리도놉다

放送料訴訟

법정으로전파된 안테나난의이상―서울방송국대표보관구송(保阪久松)씨는 전주읍내(全州邑)시 료리업하는 적천박(赤川博)씨상대로 십일에 경성지방법원에「라듸오」청취료(聽取料)십팔원의 청구소송을 이르켯다 피고 적천은 작년오월일일부터 이달까지 열여덜달동안이나「라듸오」를 듯고서는 매월의원인청취료를 열여덜달동안에 한푼도내지안헛다한다

秦皇島의同胞 七十圓出捐

삼남수해동포들을위하야 本社로寄托하여

일기가점점 치워가되 삼남지방의 참혹한수재를 치른리재동포들에게 아직도충분한 구제의손이미처지 못한채그기야조차 이처지기 쉬운이때에 멀리해외에가서 어렵게사는 형제로부터뭄소한의연금을 본사로 부치어왓다 중국하북성진황도(河北省秦皇島)라고해도 우리와인연이먼땅이라 아는사람이 적겟지만바로 산해관(山海關)부근 이다 그곳에도 류랑하여간 조선형제가 적지안케 살고잇는데동정의연금을 모집하야 칠십삼원류십전을 본사로보내면서 수해동포들의참상을 진심으로 념려하는간곡한통신을하엿다

川崎銀行깽事件 最高十五年

【電通東京電話】 재작년십일월륙일에 천괴재백은행대삼지점(川崎第百銀行大森支店)을백주에「피스톨」로 습격하야 행금삼만일천칠백 칠십여원을 강탈한는해「깽」사건은 십일오전 열시반부터 동경지방재판소 에서다음과 가티구형(求刑)하얏다

懲役十五年 大塚有章(三[illegible])
無期懲役 今泉善一(二[illegible])
同 久木勝一(二[illegible])
懲役十年 西代義治(二[illegible])
同十二年 三木金藏(二[illegible])
同十三年 中村総一(二[illegible])
同十五年 石井正義(二[illegible])

後藤博士의奇禍

【新京九日發聯合】 적봉(赤峰)주후소설립준비로 출장중이든만주국 주앙관 상대장후등일랑(後藤一郞)(五[illegible])박사는칠일정오자동차가 금주에서봉산선(奉山線)렬차와충돌하야 그만참사를당하엿다 한다

殺虫劑가무든 果實을注意하라

깨끗이씨쳐먹어야한다고 警察部에서注意식혀

과실을주의해먹읍일=경긔도경찰부위생과에서는 십일에 관내각경찰서에 대하야 과실에살충제(殺虫劑)약이그냥부터잇지안흔가를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엿다 파수원에서 벌레를죽일양으로 과실에독한 살충제를태개뿌리는데 그독한약이 그냥부터잇는것을 따다가 거리의상점에서팔고잇는까닭에 그런과실을사먹고아주위험한번을닥한사람이각금잇다는소문들요지음에드럿기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고저함이라한나

齒科醫合格者 朝鮮人三名

【금전시행한치과(齒科)의사시험제일부시험에 합격한자는 구일총독부에서 발표하얏는데 그중조선인은다음세명이라한다

金用杰 秋章煒 李鳳璋

藏原惟人 七年役言渡

동경재판소서

【電通東京電話】 일본「푸롤레타리아」문화단체의 최고의 리론적 지도자로서 최후까지전향을 하지아니한 장원유인(藏

列車서跳下타重傷

구일오후 여섯시십삼분에 제사백십칠호렬차가 경인선소사(京仁線素砂)역구에 들어가고자할때경성에서 소사로 도라가든려객부천군소사면심곡리(富川郡素砂面深谷里)김명준(金明俊)(三[illegible])이란사람이 정거하기전에 뛰여내리다가 머리를다처서 인사

滿浦鎭線延長할 國際橋明年着工

鐵路와人道가兼用될大鐵橋 內務、鐵道兩局協議

만포진(滿浦鎭)선의 준공이 진행됨에따라 한주국조양진(朝陽鎭)파 련락할 압록강(鴨綠江)국제철교의 가교문제는 그간총독부와 만주국간에 구체적협의가 진행되고잇든바 새철교는현재의신의주(新義州)안동현(安東縣)간의 철교와가튼 형식의 철도용과 인도교를 병용한것으로 가설하게 대체의방침이결정되엇다 한다 만포진선이 전통되고 도만주국까지 전부련락되면만포진과 대아과의 교통이번잡하여감에따라 인도교의 필요는 밀연적으로 생길터임으로 두교량을따르히 가설하는것보다 병용교(併用橋)로 가설하는것이경비와 절약도됨으로 철도국과내무국에서 구체적 협의를한후명년부터 가설공사에 착수하리라는데 곳비는 오백만원의거액에달할터이라한다

運動競技

朝鮮對滿洲 陸上對抗 來十四日京運서

朝鮮對滿洲第四回陸上競技對抗戰은 京畿道陸上競技協會와京城陸上競技聯盟共同主催로 來十月十四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第一、二回에는 滿洲軍이勝利하엿고 昨秋大連에서열린第三回에는 朝鮮軍이快勝한뒤이라 滿洲軍은 今春부터一層活氣를띄워잇슴으로 이번對抗戰은實로一大激戰을演할것으로 期待된다

◇兩軍의出戰陣容

◇百米＝【朝】韓喆鎬、李乙炳、福田、山本、【滿洲】西、大久保、外三人
◇二百米＝【朝】韓喆鎬、李乙炳、金仁禎、大門、【滿洲】松出、西、大久保、外二人
◇四百米＝【朝】氏家、岩崎、崔仁浩、金鍾元、【滿洲】金起賢、西、井上、外三人
◇八百米＝【朝】柳長春、白圭福、孫基禎、森、金世會、【滿洲】濱田、常盤、井上、金起賢、
◇千五百米＝【朝】柳長春、白圭福、孫基禎、金世會、【滿】濱田、常盤、井上、金起賢、
◇五千米＝【朝】柳長春、白圭福、孫基禎、邊天幸、【滿】濱田、大藪、渡邊、外二人
◇低障碍＝【朝】金煥氏、森、岩崎、氏家、安達、【滿】米津、山田、外二人
◇高障碍＝【朝】金煥氏、山本、安達、本鄕、【滿】米津、中村
◇瑞典릴레이＝【朝】韓喆鎬、李乙炳、福田、金鍾元、山本、岩崎、松出、崔仁浩、氏家、【滿】大久保、松出、西、井上、武內、中村、伊藤
◇投圓盤＝【朝】劉約翰、荻野、齋藤、小林、有馬、【滿】伊藤、永澤、吉村外二人
◇投砲丸＝【朝】有馬、劉約翰、高錫穀、小林、【滿】吉村、伊藤、
◇投槍＝【朝】劉約翰、大內、荻野、金鍾元
◇棒高跳＝【朝】本鄕、西村、佐古、【滿】武內、金子、長谷川
◇走幅跳＝【朝】本鄕、福田、山本、韓喆鎬、山寺、【滿】金子、岡田外三人
◇走高跳＝【朝】宮越、前岡、本鄕、山本、【滿】武內外三人

東京「留學生」 武道會近況

水災救濟로活動

【東京】 東京留學生武道會에서는 지난十月六日에 第八回定期總會를 當地 朝鮮基督教青年會館에서 열고 諸般事項을 討議한바 잇섯다는데 特히 同會主催로 이번關西風災와 三南水災救濟「音樂과舞踊의밤」을 開催할것을 滿場一致로 決議하고 即時 萬般準備에 着手하엿다하며 今年度任員은 다음의諸氏가 被選되엿다한다

▲委員長 崔在斌 ▲庶務部 張德俊 ▲財務部 崔相斗 ▲事業部 吳世億、李萬鍾

世界野球選手權 卡軍獲得

十一對零으로虎軍敗

【電通東京電話】「카ー디날스」對「타이거ー」의 第七回戰은 兩軍三勝三敗의同率로最後決戰을行하바 十一對零으로카ー디날스軍大勝하야 一九三四年의王座를占하엿다

神競中等럭비 京師大勝

神宮中等럭비準決勝＝京城師範對善隣商業戰은 淺田氏主審으로 十日正午부터 京師의킥어프로 開始한바 京師의원사이드게임으로 始終하야 結局七九對零으로善隣大敗하엿다

京師79 (…) 0善隣

奉天野球팀來京 龍山鐵道와對戰

龍山鐵道俱樂部野球同好會에서는 目下門司、八幡等에遠征中인 奉天鐵道局野球團을 招聘하야 來十四日(日)午後二時부터 龍山球場에서 鐵道局과對抗野球를開催할터이라한다 ◇寫眞은 本社來訪한奉天鐵道局野球團一行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日本東方海上에잇고 低氣壓은 黃海朝鮮附近도 勢力은弱하다 中滿에잇서東進하고잇는대 明日도大體天氣는조흐리다

昨日 最高 一八、三 最低 八、二
今日 正午 一八、一

中國領事館의雙十節祝賀

서울에잇는 중국총영사관에서는 십일은 중국혁명긔념일로 시내의 중국인이 모혀 성대히 축하회가 열리엇다

相扶相助精神 十二分發揮

생명을구하고도식사제공 災難中의大阪兄弟美擧

【大阪】 대정구소림정(大正區小林町)조수률(曹洙律)(三二) 락달원(樂達元)(三二)의량씨는 부근목종(木倅)공장에고용되여잇는터인데 그때공장이 위험하여젓슬때 위험을무릅쓰고 공장주의처로 오십세가량된 녀자도 구조해주엇다

◇ 전남려수군려수면(麗水郡麗水面)에 본적을두고 동성구동소교북정(東成區東小橋北町)에사는 장권옥(張權玉)(四四)조삼주(趙三柱)(二[illegible])량씨는 경남진주군금곡면(晋州郡金谷面)에 본적을둔 서정천구대화전정(西淀川區大和田町)김명선(金明善)(二[illegible])씨는이십일일부근일대가침수하야부근공장에는와사백명의 조선동포가 피난하여 당장먹을것이업서 곤난을당하고잇슬때 우선이십원을 가지고 사기어려운쌀을 사가지고와서 식사를 차럿다

◇ 도기서천하산장강(堺市濱寺)산하(山下)에거주하는 조선인사헐여호에서는 이번에 부근에 조선인동포들이 곤난한것을 보고 각호에서 쌀을모아 피난민에게 분배하야 두고 이이십일일아츰부터 두끼를지어먹엿다

◇ 도정남(堺市)마산부(馬山府)에 본적을 두고 주길구천원리 소야정(住吉區天王寺小野町)에 사는 김덕수(金德洙)(二[illegible])씨는 계지삼보정(堺市三寶町)리재민수용소인 상업학교에서 그곳에 수용된 리재조선동포를 위하야 각별한수고를 다하야 일반에게만흔만족을주엇다

平壤署長相對한 養女引渡의訴訟

원고중국인구가부당하다고 高等法院서도棄却

조선계집아이세명을중간에두고 국제적 소송꺼리로 되어잇든평양아청리(平壤衙廳里)사는중국인왕소지(王紹智)가 삼강이삼(森岡二三)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하야평양경찰서장고천정길(古川貞吉)씨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떼아서간 원고의양육하든 조선계집아이소추(小秋)(一二)소봉(小鳳)(一〇)소영(小英)(七)등 세아이를 도로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사건은 고등법원에서심리한결과 구일에 원고왕소지의상고에대하야 기각판결을 하엿다

사건의 내용은 평양에서한동안 문제를이르킨인신매매(人身賣買)또는 영리유괴(營利誘拐)사건인데 작년정월부터 중국거리에서 생긴 사건인데 원고왕소지와 그의안해류군정(劉君亭)과 기타 중국인세명이 아편밀매, 인신매매, 유인독혐의로 모다 평양경찰서에구속되엿섯는데 그때에 왕소지의집에 기루고잇든 전기세아이는평양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빼아서다가 조선사람 리장우(李壯祐)김희연(金熙淵)정봉선(鄭鳳善)등세명에게 맛겨서양육시켯다

◇그런데 그뒤원고 왕소지는검사국에서 불기소로 석방되여나와서 인신매매 또는유인의혐의가 업는것으로 증명되엿스니자기가 기르든그세아이를 돌려달라고 고천평양경찰서장을 상대로 평양지방법원에 소송을이르켯는것이다

일심에서도 원고들은 창기로팔아먹는일이 잇는것으로 보아서 다만 선의로양녀로 기르겟다는말은 미듬수업는바이며 또한국가행정의 일기관인 경찰서장이권한으로 처리한것이매 서장개인을 상대하야 돌려달라는청구를하는것은 부당하며 또한서장은 현재그아이를 마터가지고잇지안코 전연관계가업스니 돌려줄의무가 업다고 원고의청구를 기각하엿든것인데 고등법원에서도 역시기각판결을하여 오래문제중의사건은끗마첫나

軍官校出身의青年 海路單身潛入多數

本町署에檢擧된義烈團員 金某의取調로判明

수일전시내본정(本町)경찰서에 검거된 김모는 상해(上海)로부터 비밀한사명을띄우고산동(山東)을것처인천(仁川)에상륙하야시내다옥정삼칠번지에 류숙하고잇는청년김성제(金聖濟)를 인천서 체포하야 이래비밀리에 취조중인데 사건내용은전기김성제는일즉이 조선연극사(朝鮮研劇舍)라는 연극단체의배우로잇다가 소화칠년이월 상해로건너가 그곳에잇는 의렬단장김원봉(金元鳳)을 알게되고 또그의소개로남경성외(南京城外)탕산(湯山)에잇는국민정부군사위원회간부훈련소(軍事委員會幹部訓練所=俗稱南京軍官學校)제륙반에 들어가 륙개월만인 작년사월에 졸업하고즉시의렬단에 가입하엿섯다 그뒤남경상해 무석(無錫)등지로 래왕하며 활동을 하다가금년오월의렬단단장 김원봉으로부터 조선에 잠입하야 군자금모집동지획득의 밀령을 바더가지고 류월하순경 상해를 떠나산동을거쳐중국사람의 선편을 리용하야잠입하엿다가 전기와가티 체포된것이다 그리고 동인의취조를따라최근의렬단에서는단원을조선에 잠입식히는데잇서 첫재한사람이상은 절대로동시에 잠입식히지 아니한다는것이니 그러함으로써 체포되는률을 적게하자는것이요 둘재안동을 경처드러오는북방 국경은 최근경계가 엄중함으로 바람을 곳지더 산동등지로부터 중국선편을 리용하게한다고 한다

在監十四年中 妻子는離散

가도방면서일즉부터활동 全一氏出監上京

일즉이 어려서부터 해삼위(海參威)와 북간도등지를 도라댕기면서 ××운동에 분주하다가 자펴서 전후십사년동안 가옥살이를하든 전일(全一)([illegible])씨는 지난륙월삼십일에 평양(平壤)형무소에서 만기출옥하야 수일전에 상경하야 방금시내안국동(安國洞)구십팔번지에 류숙중이라는바 씨는조선서 공산주의운동사건의 피고로판결을바든 최초의 사람이요 전년의청진(淸津)감옥파옥사건의 수모이엇스며 금번에는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오년간 복역하엿다고한다 그가재감중에 그자제는 북간도에서 업서젓고 그 부인은 이로인하야 실진하야일가는완전히 리산되엇다 씨는 수일지나서 그본적지인 함북길주군덕산면 상하동(吉州郡德山面上下洞)으로향할예정이라 한다 본사를방문한 그에게 그동안감상을물으니「허허……」하고크게우스며「감상이다무어요」하고사과의교섭은끈는듯한태도이엇다

憤慨刺人

些少한일에 貯畜銀行新築場에서

십일오후령시 삼십분경에 시내욱정(旭町)조선저축은행(朝鮮貯蓄銀行) 신축장사층위에서 조선사람인부들이작업을하다가 잘못하야나무토막하나가떠러지면서그미테잇든대삼조(大森組)의창산시차랑(倉山市次郞)([illegible])이란사람의엽해내려저서 창산은노랏는데 이에분개한창산은 적정관장(赤井貫藏)과합세하여 세사람을 모다잡아다가 쇠마치로 목덜미를따리는등 폭행을 하고 다시 비수(匕首)를 들아가지고 이부태재홍(大在)의외인편여개를 찔러깁히상처를입혓는데 피해자는 곳본정일정목뢰호(瀬戶)병원에데려다가응급수당을 하얏스며 가해자는본정서에인치되엿다

登錄 商標
新生薑
販賣時期―(陽十月十五日頃 陰九月初旬頃)
全羅北道 特産品
鳳翔生薑指定取扱人
社團法人 鳳翔産業組合
全羅北道 全州郡鳳東面
振替京城二〇、〇五八番

淋藥新發見 ネオチリン 네오지린
急性用 慢性用 婦人用
아! 危險! 自身、家庭、社會、國家。許多한藥을服用하시고도後悔하시는분은 最後로新發見된 네오지린을服用하시고 幸福을다시차지십시요
(効力保證短時日完治)
藥價 一圓、二圓、三圓、四圓、五圓
兵庫縣辛饗郡細川
發賣元 株式會社 山本回生堂製 振替大阪三九三〇一番
(全鮮到處藥房에잇슴 品切時는乞直接注文)
朝鮮總代理店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振替京城四五七番

ビクター 洋樂 レコード
アサヒ樂器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三六五九番

16ミリ 出張撮影 岡本映畫部 TEL.2348

外科 皮膚科 花柳病科
鄭在權醫院
京城府樂園洞一五一 電話光化門二二九二

朝報案內
帳簿係 一人採用 中等學校程度로確實한保證人二名을要함 希望者는履歷書携帶本人來談을要함
京城 天一藥房

イラトインキ (이라도인키)
2オンス入 スポイド付 正價30セン
滿足
이말은 ライト愛用家의 一致的批判!!!
(大瓶、小瓶合種……全國의文具店에잇슴)

本舖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東京

世界的蛔虫驅除藥
마구닌錠 마구닌제리

無病한家庭
어머니의생각하나로
無病은 家庭平和의根本입니다 더욱이어린이의健康을阻害하며 榮養을奪取하며 腹痛이잇는무서운蛔虫의害毒이太甚하오니어머니되시는분이此에留意하야한달에한번씩마구닌을때이십시오
마구닌錠 三〇錢 七五錢 一圓三五錢
마구닌제리 二〇錢 五〇錢 一圓 二圓
十錢마구닌錠(大人一日量)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京城西小門町
KM—49

서로례의를직히자

가는례가잇서야 오는례도잇는법

전차간이나 기차간에서보면 조선부인네들은퍽예의를 가초지못한것을항상목도합니다 원래조선은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하여 예의로써 조선사람의 자랑을해오든이나라사람들이 이가치예의를 잃른다는것은 크다란 수치라고하지안흘수가 업음니다

◇

우리는전차간이나 긔차간에서 자리가업을때 조선부인네는 염치를 불고하는 업는자리에 부버안느라고 궁둥이를 남의 무릅우에 마구 올려 노커나 혹은남이 잡은 자리를 마구빼서 안는것을봅니다 이는 자긔일신을 평안하게 하기위해서 남을 생각지안는것이므로 문화인으로써는 도저히 하지못할일입니다 더구나 여자가 남의무릅에 궁둥이를 올려노코 부버대는것은 그꼴이 우서울뿐 안이라 그것을 다른나라사람이 본다하면 얼마나 비웃고 욕하겟습니가? 비록 거들로는 아모말을하지안음으로 상관이 업는듯하지만 이런 비문화적임이요 교양이업는 행동을 하면 조선사람의 망신이오 조선녀자의 크다란수치입니다 더구나남의발등을 밟고도 아-말도 하지안코 서고잇거나 남의옷에 흙더러운것을 떠러트리고 아모 잘못된인사도업시 가는것은 용서못할 비문화인의 행동입니다。

남자도 그러하지만특히녀자는그가지는바 태도와 동작이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워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아름다운태도 그겸손스런 표정 그점잔흔행동이 그나라녀성의 미점으로써되여야 할것입니다

◇

때때로 전차간에서 만흔짐을 가지고 올으는 녀자를 봅니다 그리고는 그크나큰 짐을남이안질 자리에 노커나도사람이 다니는곳에 노하서 아조 승객에게 불편한감을 주게하는일이 만습니다 이것도남을 위해주의해야 할것입니다 만흔짐을 가지고 올랏스면 한편구통이에 노앗다가 가자고나려가야 할것안데 이러케 남을생각지 안코 편하할때로만하면 공중도덕을 무사하는것으로 이는 크게주의해야 [illegible]니다

◇

전차나긔차중에서 [illegible]을 봅니다 이것은 신녀성들의 꼴인데 치[illegible]을 터처 [illegible] 니다 그리하여 모-던미가 잇게 날신하게 차린신녀성의 아、라모-드한꼴이 그만아주맞츠하게 되는것입니다 조금 옷매무새를 잘할 필요가 잇지안흘가 생각됩니다

◇

문화된 사람은 예의를 잘 직히는것입니다 예의를몰으면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이안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조선여성은 특히이에주의해주서야겟습니다 이리하여야 참된조선의여자의 어엽뿐자태 단정한모양을 남에게보힐수잇슬것입니다

十月十日 (水曜)

◇午後六時童謠 一、齊唱 백일홍 二、同 할미꽃 三、獨唱 장미꽃 四、齊唱 나팔꽃 五、同 무명초 六、獨唱 꼿업는바다 七、獨唱 너름저녁 八、齊唱 남생이 昌信學院兒童 伴奏 徐相熙 指揮 徐丙仁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科學界의三大恩人(一)金容瓘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化에對하야 (三) 京畿道囑託 曹元煥

◇同八時 俗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寧邊歌 四、도라지打鈴 五、노래가락 六、唱夫打鈴 李眞紅

◇同八時二五分 連續라듸오•드라마 (配役) 喬生......徐月影 淑芳......卜惠淑 金蓮......金仙草 張老人......金聖雲 酒店酒人......尹聖畝 湖心寺僧......朴齊行 라듸오플레이 미-링 脚色 指揮朴珍

◇同九時 歌詞 一、相思別曲 二、漁夫詞 金水晶 文山紅 大笒金永根

十月十一日(木曜)

◇午後〇時五分 獨唱 一、荒城의달 瀧廉太郎作曲 二、小夜樂토스티作曲 三、悲歎마스네作曲 四、퀘스타오켈라...歌劇『리골레토』中에서...빼르듸作曲 五、아베•마리아마스네作曲 六、로-만싸...『메피스토펠레』中에서...보이드作曲

◇自同一時至六時 蹴球試合實況 (朝鮮神宮奉讃會主催)—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專門部 一般部 決勝戰 (或은時間의變更이잇슴)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아르르의女子 비제-作曲 二、캠프의노래 古賀政男作曲 三、收穫者의舞蹈 四、도마뱀과개고리 宮田東峯編曲 五、세비라의理髮師三番 롯시니作曲 六、眞實을찾어라 佐佐紅華作曲 七、西班牙의狂想曲 숍베-리作曲 崔悲波

◇同六時二五分 滿洲語講座(二) (에스뻬란토使用) 張志暎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化에對하야(四) 京畿道囑託 曹元煥

◇同八時 伽倻琴併唱 一、短歌 竹杖芒鞋 二、短歌 어화靑春 三、사랑가 四、興夫歌 金錦玉 杖鼓 沈相九

◇同八時二五分 連續라듸오•드라마 牧丹燈記(二) 全三景 (配役) 喬生...徐月影 淑芳...卜惠淑 金蓮...金仙草 張老人...金聖雲 酒店主人...尹聖畝 湖心寺僧...朴齊行 라듸오•플레이•미-링 脚色•指揮 朴珍

◇同九時 (大) 管絃樂 日本組曲 一、富士山 二、瀑布엽헤서 三、寺院에서 四、춤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요세프•라스카

十月十二日(金曜)

◇正午 野球試合實況 朝鮮神宮奉讃體育大會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午後六時 兒童劇 運動會前날 —全二景— 一景、影基의집 二、집뒤山기슭 【配役】 影基......尹福淑 影姫(影基의兄)......申順今 影順(影基의누님)......崔五吉 청개고리......朴南順 바람의神•햇님......洪永禮 金蘭會會員 指揮 史相奎 解說 申順今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科學界의三大恩人(二) 金容瓘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化에對하야 (五)京畿道囑託 曹元煥

◇同八時 俗謠 一、愁心歌와역금 二、山念佛 三、긴아리랑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開城難逢歌 金玉葉 李眞鳳

◇同八時二五分 連續라듸오•드라마(三) 牧丹燈記 全三景 (配役) 喬生...徐月影 淑芳...卜惠淑 金蓮...金仙草 張老人...金聖雲 酒店主人...尹聖畝 湖心寺僧...朴齊行 라듸오•플레이•미-링 脚色•指揮 朴珍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赤壁歌 曹學珍 鼓手 池龍九

조 줘좀 보셰요
조 쥐란 놈。
벽장속에둔 밤을
훔처간 놈이 저놈
이에요。밤에 잠잘
때 천정우에서 다
름박질하는놈。 광
속에둔 벼섬에 구
녁을 내는놈。 조
놈을 어떠카까

(왕 방 울)

學藝

朝鮮語研究의本領

牽强附會의『船來』法則模倣

(四) 洪起文

다섯재로 牽强附會의模倣이니、例컨대英語、獨語、佛語乃至印度語、波斯語의法則을번떠서 朝鮮語의法則을이루려는것이다。眞一다른言語와朝鮮語間에一致되는法則이라면 조금도쌀이라만 그勿論서로一致되지안는것을 억지로引用하는만큼牽强附會라고말하게되는것이다。그러나 英獨佛語와印度波斯語를들엇다고해서 반듯이꼭그런말로부터 어떠한法則을模倣해온實例가잇는것은아니니 그저 그러케똥떨어진言語로부터도아모法則이나模倣해오려고하는것을 說明함에지나지못한다。或者는

實例 를誇張的으로써 남을責望키에 急하다고 도리어나를責望할는지도모르다만 나로서그만한責望을避키爲하야는 그實例만못지안한實例를얼마든지가지고잇다。아니日本語가 屈折、添加、單綴세言語形態中 그어느形態에屬하는가? 물을것도업시添加語에屬하는것이아니겟는가? 아죽까지 日本語의語族이不分明하다는것은 綿密한語族分類에잇서 우랄、알타이族에屬하느냐 獨立한語族을이루느냐等이 未詳하다는意味요。決코그形態조차도 아지못하겟다는意味가아니다。突然히日本語의言語形態問題를끄집어낸다고 나물싱겁게생각할는지도모른다만은 나의眞正한니야이는 실상 여긔서부터出談하게되는다。日本語가添加語인

以上 그動詞의四段活用、上二段活用、下二段活用等도 結局語幹과語助의 結合이요 決코그屈折의變化가 아니다。日本語의動詞는다른말과 혼添加語와가치 語助를떠나서 別로獨立해쓰이지안코 또假名字는單音字와달러서 綴音는表示하는까닭으로 語幹과語助가 서로맛부터 언듯그區分이쉽지는안치만 羅馬字로 고치어서 노코보면 그래도 그區分이나서게된다。그런데 朝鮮語에對하야 이段活用을 輸入하려는 사람이 업지안타。正音이 單音字임에不拘코 그들은구지구지段活用을輸入코자 焦燥하는모냥이다。잡고잡으니잡아서、[二]고 먹으니 먹어서라는動詞를본다면『잡』과『먹』이

語幹 이요『고』『으니』『아서』『어서』는語助即토됨이 本來明瞭한것아닌가? 그것을 구태어段活用으로맨들지안허서는안될理由가 果然어데잇단말가? 가로되『ㅎ』音은 바침으로쓸수업는것이요 가로되『쌓고』『쌓으니』『쌓아서』는『싸코』『싸흐니』『싸하서』로써야할것이라 그럼으로『쌓』하서는말과가튼動詞는 全部段活用으로만 說明되거니와 딸아서朝鮮語의全動詞 乃至全形容詞도 오죽段活用으로써만說明하여야한다는것이다。헤—겔은그의哲學을가저 宇宙를論理化하얏다고하지만『ㅎ』音바침不用論者들은 이기다란論理의體系를가저 添加語인朝鮮語의添加的結合을 屈折化시키어노핫다。『ㅎ』音을바침으로쓰든지못쓰든지 그

問題 를떠나서라도 添加的結合을屈折시킨다는것만은 죵처럼 首肯하기어려운일일뿐이아니라 設使『ㅎ』音바침不用論이 萬萬眞理로果然不可侵犯의權威를가젓다손잡는대도 멧마듸말의例外的例를들어서 全言語形態上歪曲의歸納을 到底히容許할수업는닐이다。『잡으니』를『자브니』라고쓰든지『먹어서』를『머거서』라고쓰든지 그記寫의方法은 한便宜의問題에不過하는바로되 語幹과 語助의結合이라 거니아니라 거니 그形態의判定만은 어데까지明確함을要하는것이다。

對米關係五十年史

駐米最初朝鮮公使

湖岩

淸公使의詰問

[國] 書奉呈前에 一大節이 생겻스니 그는 在美淸國公使가 朴公使에게 對하야 詰問한것이엿다 朴公使가 맨처음 서울을 出發할때에 淸國北洋大臣 李鴻章으로부터 일은바 另約三端을 提出하엿슴은 前回에 이미 論述한바어니와 朴公使가 華盛頓에 到着하자 가장 말성이 된것은 이三端中의 一인先赴同赴이엿스니 先赴同赴란 무엇이냐하면 朝鮮公使가 처음으로 그駐箚國에 이를때는 먼저 淸國使館을 차저 淸國公使와 한가지로 外部에 가는것이다 그러나 朴公使는 淸國使館을 먼저 訪問하지 아니하엿더니 淸國公使張蔭桓이 二十八日그參贊官彭光譽、徐壽朋과 隨員李春官等三人을 보내여 先赴同赴의事를 質問함으로 朴公使는 答辯하기를 自己가 本國에서出發할때

[北] 洋電報가 實總理에 왓다함을 듯기는 햇스나 너무 船期가 急迫하야 우리政府의 命令을 밧지못하고 떠낫슨즉 自意로擅行하기 어렵다고하매 淸使館員들도 과연 그러켓다하고 물러갓다 이때 朴公使와 淸使館參贊官彭光譽 사이에 서로筆談으로 酬應하엿는바 그中몃節을 抄出하면 이러하다

[彭] 貴官이 何日에起程하엿스며

朴、九月晦日에 被程하엿스며 合느가 再昨日비로소 이땅에 어르럿소……

彭、……貴官이 이곳에 왓서 반드시 먼저中國使署를 차줄터인데 지금數日이되도록 往駕하지안흐심으로我使憲이 매우驚訝하야 이처럼 不佞等을 시켜 먼저와서 問候케하나이다……

朴、貴公使大人의 盛念은 感謝함을 익이지 못하오……

彭、本年秋冬間에 我使憲이 總理衙門과 北洋大臣李의 公文電報를 바든바 모다 貴官이 奉使來美하는일이엿고 九月廿六日 北洋大臣李의來電에 依하면 貴

[王] 께서 貴官이 美國에 이르러 먼저 中國使館을 차저서 中國公使와 한가지로 美國外部에 가는것을——允許하셧다 함으로 我使憲이 이미 本月廿六日 美國外部에 照會하기를 貴官이 到着하면 한가지로 가서 拜晤하겟노라 하엿더니 今日我署에 來到한 外部照會를 본즉 書面貴官으로 더부러 接見期日을 定햇다하니 貴官이 中國使署에 具報하며 또는 我使憲과 外部에 同赴하는與否를 ……明示함을 바랍니다

朴、中國公使를 遠洋接際에 明帖을 使用하며 또는 公文往來에 呈文으로 辦할것은 이미我政府의 命이 섯스나 貴署에 先往하야 美國外部에 同赴하는等事에 이르러는 다만北洋의

[電] 報가 온줄만 압뿐이요 我政府에 我政府가 總理로 더부러 다시妥定하야 그前까지 前事이 업수— (?)

彭、北洋大臣의 電報內三端 中에 一、要事商議는 以下——이후은 協議함이바 아니냐——다만 中國使館에 先赴하야 美國外部에 同赴하는 一節에 잇서서 後에屬한 일이요 一、公會席에 中國公使의 다음에 안는것은 各國公使의 赴任한 先後順에 依함으는 貴官이 貴政府의 明文을 밧지못햇슨즉 그命約을 遵行하려는지 明白히 알려주소서……

여기 關해서 朴公使의 答辭이 엿섯고 또彭參贊과 書記이 잇서서 筆談이 얼마되다어나 도라갈때 彭氏가 最後에 일이기爲하야

[談] 草幕 가두어 녓코 갓다 翌日에 彭、徐兩人이 또 지로써 昨日에 談判하든 先赴同赴의 일을 따짐으로 朴公使는 昨日에하든말대로 回答하엿스며 그翌日에가서 彭、徐兩人이 또다시편지로써、國書奉呈時 儀式節次를 물엇슴으로 參贊官 李完用을 시켜 淸使館에 가서 翌日그네들의 來訪한것을 謝禮케하엿드니 公使以下諸員이 外出하야 맛나지 못하엿다

(寫眞說明) 朴公使의從宦日記가 二十餘冊이잇는바 美行日記는그中의하나로 一行二十字 一面十二行、一枚二十四行、全冊約一百五十枚로되 內容이 자못詳細한 在美時代公私生活의 記錄이니 만치 外交史料로서의 더 貴重한것이다

美行日記

丁亥九月二十五日乾晴

余於六月晦日奉有駐箚美國全權大臣之命

二十六日陰晴

二十七日晴

是日辭朝陪奉國書出宿于……

頭腦를쓰는사람이 어찌해고달픈가

벤딕트博士의말은이러타

肉體的勞働을하는사람과 精神勞働을 하는사람과의差는 어듸잇스며 엇지頭腦가疲困해지는가에대한 研究를하고잇는 벤딕트博士는 이러케말한다

腦力을劇烈히 活動식힌後는 心身이疲勞한것은事實인바나 腦의움즉임은 平常에 움직일때와는 影響이업다 따라서 머리를 쓰는사람이라도 반다시 魚類나 그外의 榮養을 만히품어잇는飮食을 勞働本位의사람과 比較하야만히取할必要는업다 다만劇烈히作用을식힌때에必要한것은 南京豆를二쪽、빠나나의消化되기쉬운部分 一匁程度로 體力의 消耗를일삼는때에比해보면 主婦가三分間집안을치우는데 쓰는에네르기보담만흔 給養은必要로하지안는다고

藝術과自明한것

(8) 오—르떠쓰·헉쓸리 金煥泰 譯

모—든나라에잇서서 佛蘭西에 잇서서는 딴나라에서보다도明瞭하기는 하나 自明한것에對한 同一한 恐怖가 同一한效果를 産出하고잇는것을 우리는본다。彫塑的藝術이모—든 그들의『文學的』性質을剝奪當하고 繪畫나 影像이 그들의 嚴密한形式的要素에還元되는것을 우리는 본다。거이모—든 劇的 哀歡的 柔軟한情操가排除된音樂— 肉的 에너지나運動의表現에그 自身을 意識的으로 制限한音樂에우리는귀를기울인다。音樂과視覺藝術놀들다機械와罪來과 單只筋的肉體를高揚식히고 靈魂과孤獨과自然을 蔑視하는저이제頭倒된浪漫主義에依하야 多少의程度의差야 잇지만은飽滿되여잇다。尖端的文學은同一한浪漫主義로차잇다。그의主題는以前時代의사람들에 依하야 가장놉히評價되여온永遠한自明性을 排除함으로써 任意로單純化되엿다。

人間性의 全部의그들偉大한 過去數年間에 根本的으로變化되엿고 現代男女는 前時代사람들과는 根本的으로달으다든지、적어도그러치안으면 안되다고確認하는 全然根據업는그러고나의밋는바에依하면全然虛僞인——一種의 歷史哲學에依하야 理論的으로 是認되다。또한自明한것에 對한作家의恐怖가 顯現하는것은 主題에關하여서뿐이아니다。그는그의藝術的

媒介物에 잇서서도 明白한것에對한 恐怖는 即 徐徐히完成하여온 言語의道具를破壞하기爲하야 苦心慘憺한努力을하게 그를만드는 恐怖를가지고잇다。完全히 그리고無慈悲하게 論理的인 사람은全的虛無主義를 誇示하야 모—든藝術과모—든 科學과 모—든組織된社會의 壞滅을 보라고한다。어데까지 自明한것에對한恐怖가 그의犧牲者를몰아갈는지 實로두려운일이다。

가을을보면서

朝鮮의山野와季節과人物

(1) 夕影

이때에는 가을이 짧은것갓다 님히 누르러 지기만하면 꼿겨울이 온다

◇

봄은 가시네에게 가을은 사나희에게 季節을 가지고 그男女의 心情을 맘해나려오지만 그럿타하니 그러할까 四季가 뚜렷하거나 노하잇스면서 너무도 換節期가 빠르니 이따의사나희의 허잘것업는 節介와 가시네의 朝三暮四가만흠이 그럿이라할까

◇

봄이면 늘봄이든지、여름이면 늘—여름이든지 겨울이면 늘—겨울이엿스면 조홀번하엿다

◇

朝鮮은 한울이 늘—푸르고 山野가아름다웁고 물이맑고 또거기다가 春夏秋冬의 季節이잇는 樂土란는 그말이듯기실흔 까닭이다

◇

白衣는——도야지우리가튼 茅屋은——朝鮮의山川에調和가된다는 말도듯기실흔 말이다 綿子를어이는 말이다

◇

이때에 北極의 줄기찬겨울이 덥처오든지 아프리카希望峯沿岸의 여름이 겨오든지해야 사람이달러질것이다

—굿세인 사람이되든지 —勇의사람이되든지

◇

그리고 욕망욕망한山이다 —물러가고 一望無際의曠野로 박귀든지하엿스면조켓다

◇

過去의 우리의歷史가 그사람사람、이웃이웃의小爭反目도 어주를살만흔山이 가리킴이다

◇

그러나 가을은 거두는때다 보라——金물결치는 벼이삭을——농산동산의 香氣로운果實들을——

◇

그러면 이가을에 그대들은 이것들을 얼마나거두라하느냐

—(議政府에서)—

◆ ✱ ◆ ✱ ◆

嶺南遊記

(四)

東萊溫泉場의一夜

보헤미안의無軌道旅行

咸大勳 文 金奎澤 畵

密陽서 支局長趙鏞禧氏와 그곳有志 金邪泉氏와의 親切한案內와 分에넘치는愛慮에感謝를 드로고 우리는 다시

京釜線列車 에 몸을 싯게 되엿다、元來 軌道를 입키되 旅行하라 이제는 釜山으로 들러 東萊溫泉으로가서 一夜를 보내기로 하엿다 아무도 不自由가 가비야히 車에 부딧처 이비는 容易히 끄칠것 갓지도 안타

密陽서午後四時二十分에 떠난우리는 六時半에東萊溫泉에 다엇다 只今으로부터四年前東京서 所謂學校를 卒業하고歸國하든몸 멧칠울룩엇든 ××館에 짐을나리고 疲勞에지친 몸을 浴湯에서 풀게 되엿다 浴湯에는 아모도 업는모양 四方은 고요하다 그러나 얼마잇지 안허서

녀浴湯에서 는간얄핀 女子의목소리가 들려왓다 아니 그女子의 목소리만이 안이다 男子의목소리도 들리엇다

『히히』

『호호』

『아구 뜨거워!』

『아이난 못드러 가겟서요!』

이런 말소리가 벽하나를 通해서 이 고요한 初저녁 溫泉場의 空氣를 흔든다 아마도 이壁 넘어서는 볼수업는 禁斷의 地域의 異常한 風景이 展開되는貌樣것다

우리는 異常한 興奮에 싸혀 浴槽를 나와 몸을 대강 싯고 房으로 드러왓다 저건넌방에서도 때때로 자즈러진듯한 女子의 우슴소리가 들린다 또

웃방에서도 女子의아양떠는 말소리가 들린다 이따금 低音男子의 국다란 소리도 들리는것을보면 妖艶한 女子의 웃음에 이男子는 친을 흘리는모양! 溫泉場이라! 이런遊興이 업슬수 업겟지만 너무도 大膽한 ××風景에 우리는 혀를 치지 안흘수가 업섯다

얼마뒤 우리가온것을 알고 本報東萊支局長 韓一徹氏가來訪해 주엇다 旅館에서 暫間 수이고 우리는 東萊의 밤거리 求景을 하자고하야韓氏의 案內로 東萊邑을 一巡하게 되엿다 柳町의 色酒家집 아가씨의 애처러운 밤노래를 고요히 들으며 캄캄한 밤거리를 헤매엇다 그리는中

青年運動이 한창隆盛하든때 歡喜와 巨額을 드려 建築한 靑年會館의巨大한 建物압헤다다르게되엿다 우리는밤거리를울긴다밤이라뜩뜩히는 보히지 안코나 이建物이 過去 靑年運動이 寄與한바 적지 안타는것을 생각할때 感慨無量 하엿다 只今은 그들은××으로 或은 國外로 나아고잡지힘이 업다하야 그집을某會에 넘겨주엇다니 果然東萊의 靑年은 이집지힐사람이그러케 업든가?

己未運動以後 雨後에竹筍가티 蜂起하든 靑年運動 其後民族主義的 興奮에서×× 主義運動으로 質的變化運動이 展開된以後 朝鮮의 山河는 赤色洗禮속에 물들게 되얏다 그러나 ××運動이 그絶頂에서 한고비넘은 그뒤

朝鮮各地에는 靑年會看板이 風磨雨洗에 글자조차 모히지 안는形便! 이것이수년後 朝鮮運動에 어떠한길을열어줄가는 只今 나의 말할바아니 어니와 웨이러도 各地方마다 靑年의부르지즘은 이다지도 寂寞한가?

우리는 이런感激을 가운데 東萊 名物 藥酒를 終夜痛飮하고 旅館에도라왓다

그翌朝 우리는 다시 東萊驛을 떠나지 안흘수가 업엇다! 또 어제끄쳣든배가 아춤부터 보슬보슬 나린다 비오는 倉皇한 東萊驛을 熊超모와 나는 외로히 車떠날時間을 기다리고잇다

十六歲나 되여보힐가? 파랑치마 노랑저고리입은 妓生하나이 호트러진머리 구겨진 치마자락을 휘여잡고 비나리는 거리를 無心히 待合室窓을 通해 바라보고잇다아마도 지난하로밤지낸님을 못이저(?)함인가? 애처러운 업끝에는 고요한哀愁조차 어리엇다!

이車를 타고 오고간 이런하로밤맛고 리별한 아가씨를이 그얼마나 만흘것인가?

기다리는 車는와라 우리는 東萊溫泉을 뒤로두고 떠낫다

新刊紹介

▲靑年朝鮮創刊號 (主要內容) 科學의黨派性=歷史性、朝鮮研究의方法論、東洋史學論、靑年에게與함、朝鮮靑年의出發、文藝時評、創作、허러진靑年會館、병아리와남생이等 外附錄新語及人名辭典 京城府公平洞五五 靑年朝鮮社發行 振替京城二○二三番 定價三十錢

▲東亞商工時報 百三十七號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六五東亞商工時報社發行 振替京城七四四一番 定價十錢

▲朝鮮地方行政 十月號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四番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振替京城八一五番 定價五十錢

▲開闢新刊號 (重要目次) 朝鮮民族의新建設 列强의戰略과軍備 黨爭五百年史 基督敎功過論 朝鮮佛敎功過論 天道敎의功過論 朝鮮『돈멘』考 韓末外交秘錄外評論 創作數十餘篇 京城府慶雲洞八八 開闢社發行 振替京城八一○六番 定價五十錢

▲朝鮮農會幹旋通報 二十三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朝鮮農會幹旋部發行 振替京三○三番 定價六錢

▲서울시보 제십구호 京城府安國洞一五二 서울시보사發行 振替京城一二八二二番

▲文敎의朝鮮 十月號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發行 振替京城一○三○番 定價三十錢

漢詩

碧梧山人 考選

仲秋月

選外佳作 五 寶城 李馥一

玉宇崢嶸月滿城 數三砧杵競秋聲

風淸露白千家冷 雲散烟消四海明

漸覺身痾蘇自愈 更看世界淨又晴

靑蓮去後猶無恙 今作盃盤樂此生

漢詩募集

詩題 菊花

押韻 時遲枝知巵

期日 陽十月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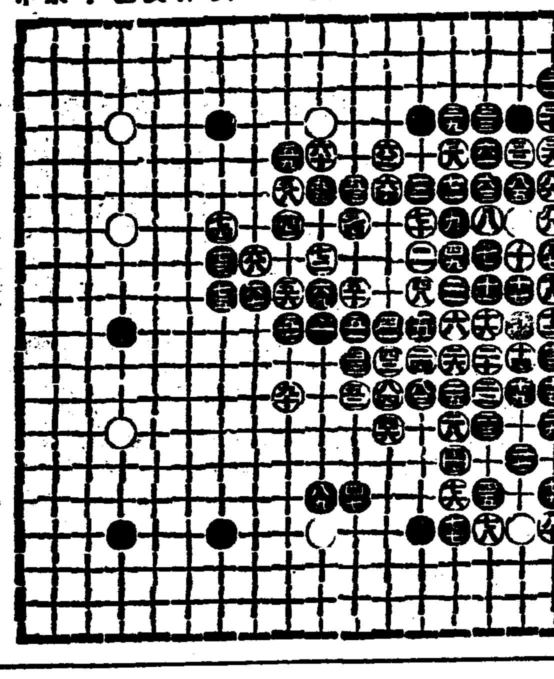
(薄謝進呈)

國手選拔 圍碁對局譜 (九)

◇本社主催◇

白 崔德文 黑先 丁奎春

略符=(□百△•二百•◎三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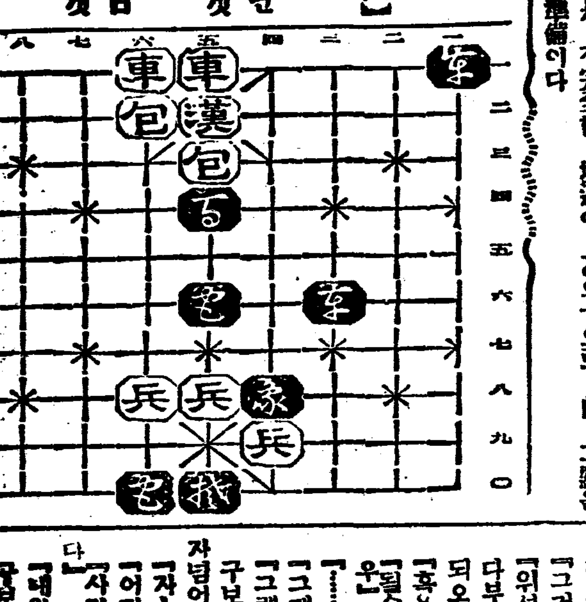
●㉑乙의十五(○㉒)乙의十六 ●㉓庚의十二(○㉔)辛의十二 ●㉕丁의六(○㉖)丙의六 ●㉗丙의八(○㉘)丙의四 ●㉙癸의十五(○㉚)子의十三

博譜

【問題一四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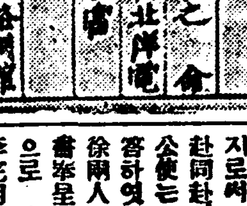
楚가 어떠케하면 漢을이기겟습닛가? 解答은明日紙上에하겟습니다

(博譜係)



◇列點 (○將點)丁의十二(○詰)乙의三

◇對局者談=白은 乙의十六으로 擋치말고 辛의十六으로 庚의十六 黑將點을 橫斷牽制하면 白中央大馬와 耳角三連星이 自然 活路가 展開될것이다 黑이 丙의入로 白을 斷遂함은 別다른奸謀가아니라 乙、丙十二、三黑橫內가 或是 不完全할 境遇에 乙의十으로 白 二點을 先次壓逐할 準備이다



愛慾 (5)

連載短篇小說

朴泰遠 作 金熊超 畵

『네? 누구요? 강상이요? 장상이요? 장상、한참동에 뎅겨가세습니다。네? 그건 몹으겟습니다。』

벗은 총총하게 수염난 텁을 손꾸락으로 비벗다。

구보는 다탄담배를 사기재터리人전에다 비벼끄고

『호랑이 날뛰는꼴은、지금곳가야만 볼껄。』

『내일이맘때 가두、보구——』

구보는 이욱히 벗의얼굴을 밟아보다가、

『참말 하웅은 그여자를 사랑하고 잇소?』

『어째 꼭 그런것가태。하하하』

옷음소리가 숨숨하다。

『하웅은、그여자 역시 하웅을 사랑하고잇다 생각하우?』

『그걸 내가 어떠케 알어?』

『흥응。그러나 어저、그적게 이름식이나 아무 소식두 업는걸보면——。』

『내생각은 조금두 안하는게야。』

『여보—』

구보는 똑바로 벗의얼굴을 보고、

『설혹 여자가 진정으로 하웅을 사랑한다드라도、아마 결코、하웅은 행복일수업슬께요。』

『그건 알구잇서。』

『위선 그는 하웅이 정열을 다부어 사랑할 여자가 못되오。』

『혹은 그럴지두 몰으지。』

『될수잇스면、지금 단렴을하우。』

『………。』

『그게 현명한일이요。』

『그래、그게 현명하지。』

구보는 만족하게 웃고 화자넘어로 하웅의어께를 쳣다

『자—그럼 나갑시다。』

『어듸루?』

『사자 정원에는 구경갑시다。』

『래일、래일 가지。』

구보는 어면하게 벗을 밟아보다가、

『역시 원숭일 진화를 기다릴생각이요?』

잠간 사이를 띄여서、벗은

『하는수업지。』

혼자人말가치 중얼거렷다。

『또한번 말하지。단렴하는게 현명한일이야。』

『구보가 입속이 말한일이잇지안소? 사랑놈 하면、남자는 바보가 되고、여자는 시인이 된다고 적어도전반(前半)은 진리인듯하오。』

『불가제도(不可濟度)지? 하하하。』

그러나 구보는 멀어웃지안혓다。단장끄트로 마루人장을치고잇다가、

『여자는 연애를 단순한 유희로 알구잇소。쨘만 아니라、남자는 결코 하웅 한사람이 아니요。그런여자한테 감정을 롱락당할까닭잇소?』

『그녀자를 안것은 분명히 불행이엿서。』

『불행이나 무어니 할것엇소 단렴해 버리면 그만이지。의개 부랑소녀에 지나지안는것을……』

『부듸 내아페서 그녀자를욕하지 말우。이건 할수업는일가태。사랑이란、진정한사랑이란、결코 주판을수업는건가봐。』

구보가 또하게 어이업게、마주편벽의 벗의 자회상만 밟아보고 잇섯슬때 종이 또울엇다。

『네 마로니엡니다 네? 네 계십니다。』

아이는 하웅에게 향하야

『선생님、전화 바드세요』

그리고 열여섯먹은 소년은 싱긋 웃엇다。

『네 웅 어듸루? 지금 거기 계십니까? 웅 하여튼 네 가지。네。』

전화를 끈코、구보를 돌아보고、자조(自嘲)에 가까운웃음을 웃고、

『하여튼 오늘 맛나보고、내레도를 정하겟소。』

그리고 하웅은 화그로 나갓다。

懸案의貿易地帶 今年內起工實現
總工事費七萬餘圓으로 土地萬餘圓을買收

【鎭南浦】 목포진남포의다년현안으로 되여잇는 연안무역지대(沿岸貿易地帶) 문제는 미곡출회긔인 이즈음다시문제가 되여서 곡측에서는 업중안취체를하고 곡물을가지고 왓스나하륙할곳이업서 대소동을 일으키여 진남포에 전상중대문제라 하여 곡물업자와 운송업자들이 대책을 강구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부당국자들도 저간그문제로 수차의간담회를 거듭한결과 칠만여원의 공사비로 연량기리 간사지(鎭南浦府千歲地)만여평을 매립키로가결하고 즉시총독부에 신청하엿다는바 금년십일월부터는 공사에 착수케되리라는바 이것이완성되면 부에서관리하여 사용료를 바들작정이라 하며성적을 보아서 창고까지건설하여 일반에게 편의를도할예정이라는바 일반서 매우긔대된다고한다

鎭南浦布木商組合 外上廢止를提唱
消費者도損害라고

【鎭南浦】 진남포포목상조합(布木商組合)에서는 십이일을 외상철폐(外上撤廢)선전일로정하고 당일은 일반조합원들이일제히상점문을 닷치고 각상점의 점원까지총출동하야선전비라수천매를뿌리며 맹렬히 하리라는데외상은결국 소비자들의게 손해라는것을 인식식히는동시에 조합원들이 결력하여 외상문제를해결코저한다는바이외에도경제상식을 보급식힐목적으로 경제강연회를 개최코저 방금강사를교섭중이라하며 조합이창립된지불과 일이개월이 되나조합적립금도 막대한 금액에달한다하며 조합원은 삼십여명이라고 한다

精神病者轢傷

【鐵原】 지난구일오전구시삼십이분동철원역착 금강산행전차가 도착될지음에철원읍중리십륙번지박로임(朴鎭一)(三○)이라는청년이여부근철로우에 누어잇슴을 발견하고급속정거 하엿스나 두부를중상하야즉시도립병원에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그는평소부터 정신에 이상이잇는사람이라한다

跳下타가慘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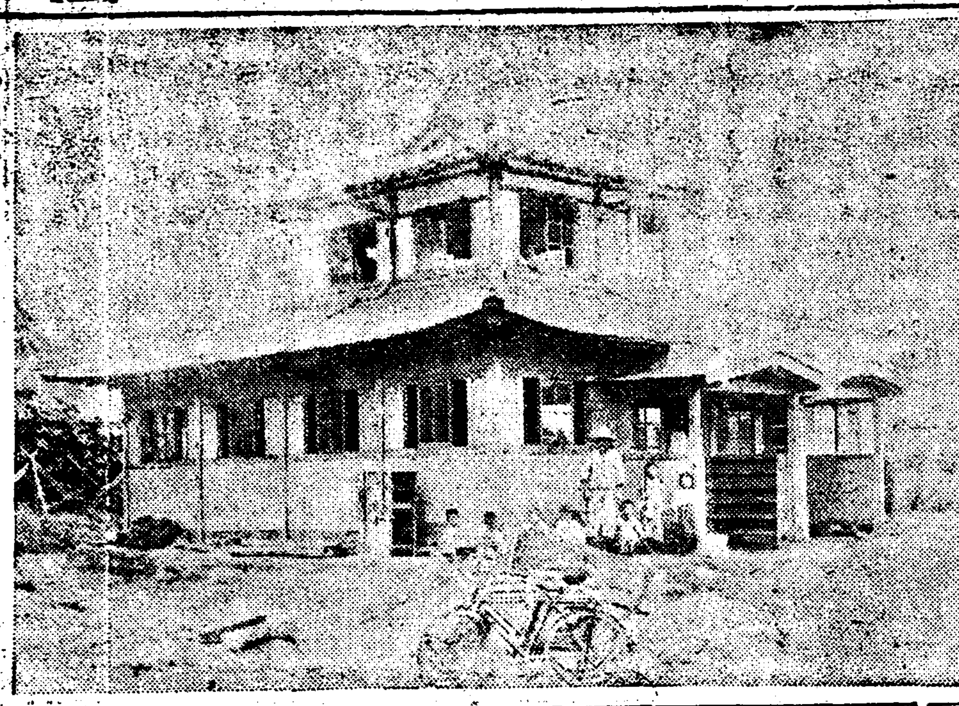
【陽德】 명천군아간면신계동(明川郡阿間面新溪洞)에거주하는김긔일(金奎鎰)(?)은 지난사일오후구시오분고참역착제일천구백십사호 긔동차를 명천역에서타고 오다가고참역에서 약일천메돌되는 지점에서 술이취하야정거장인줄 알고뛰여 나리다가긔동차에 딸다리를 상하야 즉사하엿다한다

私財千餘圓喜捨 大生夜學堂新築
文盲退治에獻身的努力
金川柳基承氏美擧

【金川】 황해도금천군외류면 문수리(金川郡外柳面文修里)에서는 동리유긔승(柳基承)씨의 발긔로 소화팔년십이월에 동리 청년사십여명으로 대생회(大生會)를조직하엿는데 동회의목적은 문맹퇴치와 상호친선으로 밤이면 글, 낫이면근로를 장려하야 성적이우량하나 지금가서 회당이업서서 항상불편을 늣기던중 지난사월에 이르러회장류긔승씨가 회당건축비로 천여원을희사하고 회원은 각각부역을 분담키로하고 긔공한것이 지난구월에(모던)이층으로 준공되엿는데 회원들은전보다 일층더 분발하야 배워야한다 근로하고 서로친목하자는 표어미테 사십명회원이 금일에는 팔십여명에 달하야 전일에는 보잘것업든피폐한문맹농촌이 지금에는 당당한문화촌이되엿다 한다

認可記念으로 聯合運動會

【公州】 충남공주읍내무산아동교육긔관인 공주야학원 농인야학원 공금야학원은 수용야학생오백여명으로 이래무산아동교육에 막대한공헌을 주엇거니와 야학으로 당국의허가업시는 계속할수업서 그간삼학원은 개량서당인가를 어더 충실히발전하여오는바 금번인가긔념으로오는이십일에 당지산성공원(山城公園) 운동장에서삼서당련합추긔대운동회를 공주상번회와 본사공주지국후원하야 개최한다는데 운동경기종목도 로동자 농민의 실생활에 비치여한다는바 관람자에게 일층흥미를주리라한다



◇寫眞—新築落成된 金川郡文修里 大生夜學會館

東明學院創立者 李元翊氏熱誠
三百六十圓또喜捨

【永興】 함남영흥군고녕면청학리(古寧面靑鶴里)에잇는리원익(李元翊)(?)씨는 북고령지대에 무산아동교육긔관이 업슴을 심이우려하여오다가 대정십삼년도에 이르러 사립동명학원(東明學院)을 창립하고 이래가진고란을 돌파하면서 꾸준히지속하야오든바존폐문제가한두번이안이엇다하나 목적관철에 분투하든 전긔리원익씨는 그럴때마다 지긔개인재산다소를 희사(喜捨)하여가며 그를 곤긍히유지하여오든바 작년구월에 들어서는 극도의경비곤란이 동학원의존재문제까지 대두케 되엿든바 씨는다시금이것을 넉넉지못한 사재에서 현금삼백륙십원을 또다시 희사하얏다는데 동학원은 전연그의힘으로서 지속하야 간다고한다

吳在鍊氏美擧 校長舍宅地寄贈

【鎭南浦】 평남룡강군해운면 온정리(海雲面溫井里)의일신관(日新旅館)주인오재련(吳在鍊)씨는 당지공립보통학교 교장사택긔지로 수백원의 가치가잇는 토지를선선긔부하엿다는바그토지는과수원으로 자긔가 재배한 과수를 찍어버리고 긔증하엿슴으로 일반의칭송이 자자하다는바씨는 온천에서 여러방면으로 사회사업에만흔활동을하고잇는 장내에유망한청년이라고한다

南陽培英學校 復活期成會組織
圖們에校舍新築

【圖們】 긔보 도문대안 남양동(南陽洞)배영학교가 일면일교제완성문제로 폐교명령을 당하야오백여명 학생이 가로에서 방황하게되엿다는것은긔보한바어니와 동교후원회회장오부선(吳?)씨외유지들의 맹렬한활동으로배영학교를 복교코저 긔성회를조직하고사천원예산으로서 교사를건축하되 보통학교가 설립된남양에는사립학교가불필요하므로당시 도문예산교사를 건축할예정이라는데 찬조금으로 방금모집된 금액이 일천삼백원에 달하엿다하며 당분간은셋집으로가 교사에서 교수하고내춘에 교사를신축하리라한다

役員 會長吳用善 幹事崔元直 金學文 財務金昌順 吳東龍

安東縣金融會長 李龍治氏當選

【安東縣】 안동금융회에서는 지난팔일오후 삼시부터 동루상회의실에서 회장선거를 하엿는데회원인천녹백여명중 ?씨구명이참석루 술한결과 사백 이십팔표로리룡흡(李龍治)씨가당선되엿다한다

……되엿는데 조합장 홍긔윤(洪?)씨개회사와 리사최관호(崔?)씨의결산보고와 경과보고가 끗나고장지순(張?)씨의……무사이때히 되고 이어서 성대한 연회가잇섯다고한다

言爭이激怒化 己子를打殺
熙川에서생긴慘事

【新義州】 아들놈따려죽엿다는참화=지난팔일아츰녕북희천군북면녕대동(熙川郡北面?洞) 윤룡현(尹龍賢)(?)은그맛아들학모(鶴模)(一三)와무슨일로 언쟁이 일어나말다툼을 하다가 룡현은격분한끄테 「람푸」등잔으로아들 학모를넘겨 따렷는바 불행히도 머리가마저 두개골이 깨여저 즉사하얏다 룡현은방금 희천경찰서에 잡히어 엄중한취조를밧는중이라고한다

古寧公普校 明春四月起工

【永興】 함남영흥군고령면공립보통학교 긔성운동은 동면면장김홍국(金洪國)씨의발긔로작년말에 긔성회를조직하고 총경비륙천원한도에서 학교비 증수를하여오든바 벌서 총경비의팔십퍼ㅡ센트가 수금 되엿슴으로 명춘사월경에는 교사건축에 착공하리라고한다

黃海道의米作 水稻減陸稻增

【兼二浦】 황해도내금년도미작수확예상고는 도당국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 금년의수도는 이앙(移秧)성적의 량호로 그작부면적 일천삼십칠섬 보증가이엿스나 림우계속으로 도내곳곳에 엽도열병(葉稻熱病)이 창궐하고 또바재를당하야 전멸놈에 상한지방도 잇섯으나 석숙긔의 긔후가 회복되여 순조로운경과를밟으면 백사십이만 칠천사백팔십팔석으로 전년실수에 비하야 삼만륙백오십칠석의 감수의 예상이라는바 륙도는 일방이생육량호인까닭으로 약백정보의 증가를보여 수확도 일천삼백십륙석의 증가를 예상하고잇다한다

簡易校設置코저 數千圓即席醵出
斗村面僻地에서

【洪川】 홍천군두촌면철정리(斗村面哲亭里)에서는얼마전에 동리아동뿐만아니라린근각동의 무산아동의 문맹을 퇴치코저동리유지들이 회합하야 간이학교설립기성회를 조직하엿다는데 당석에서 이천원의 거액을연출하엿다는바 일반은산촌 벽지에서이와가치거액이연출되엿다고하야놀납게생각한다고한다

橫領한會計員 咸興에서押來

【善山】 경북선산군모면회계……원으로 공금다수를 횡령하고그 자최를감추고 잇든바박○근(朴○根)은그간 함흥모처에서은신중이든것을 경찰이 탐지하고상야경부(上野警部)가윤형사(尹刑事)를대동하고 금거출장하야 지난칠일 범인을 압래하야선산에인치취조중이라고한다

놀림에憤慨한 聾啞少年의殺人
六日公州郡上旺里에서

【公州】 지난륙일오후오시경에 공주군주외면 상왕리(公州郡州外面上旺里)에거주하는 벙어리소년장창록(張昌祿)(一五)은 그동리 황복동(黃福同)(一五)을 낫으로 다리를찍어 그자리에서 즉사케하얏는데 이급보를 접한 당지경찰서 사법주임은 도립의원영전의사(永田醫師)를대동하고 현장에 출동하야실지검증을 한후전긔가해자를체포취조중인데가해자와피해자가 산에서 나무를하여가지고오든중말성이생겨그와가티살해하엿다는데평소에가해자를벙어리라고모욕한것을분히여긴것이원인이라한다

海平酒造組合 落成式及總會

【善山】 경북선산군해평주조조합(善山郡海平酒造組合)은금춘에창립된후 양조장과사무실을 신축공사중이든바 월전에준공이되여 륙일에신축락성놀거행하는동시에 주주총회를 열게……

災地婦女를募集 密航出發中被逮
뿌로ㅡ커二名取調中

【釜山】 팔일새벽세시경부내적긔반도(赤崎半島) 해안에서 부녀들만 모집하야 밀항하려다가출항미전에 부산서원이 탐지하고서면주재소원·금행시겨무난히밀항 당일행을 전부체포하엿다는데 밀항하려는 부녀는최근수해지 리재민들로 탕산군하의정재순(鄭在順) 외륙명이며 각기한사람에게 밀항료로 오원내지식원식을 바더먹엇는것인바브로ㅡ카ㅡ이범천(李範天)(一八)·오백구십번지 유귀룡(劉貴龍)(三○)·정달오(鄭達五)(?)등량명을체포하야 방금취조 중이라고한다

本報支局主催 庭球大會盛況
決勝은日暮로延期

【光州】 전광수정구팬들의인긔의 초점이되엿든 본보 광주지국주최 제이회정구대회는 드듸어본월칠일 광주소학교 「코ㅡ트」에서 개막되엿섯다 참가팀은 여섯으로 사십여명의 선수들의 입장식이 잇슨후경긔가진행되엿든바 준결승전에 드러갓슬때에 날이저물어 그서적 그대로 다음날에속행하기로 결정하고폐막되엿다

第一回戰
鐵技 勝(京安B)ㅡ敗(分院)
勝(山城A)ㅡ敗(京安A)
勝(山城B)ㅡ敗(京安C)
第二回戰(準決勝)
山城A對京安B鐵技는日沒延期

愛兒를爲하야 母性의苦心이헛되지안아
하눌이주시는이育兒名藥
救急에……먹이여直接奏效하고
治病에……써서諸病을解消하며
保健에……連用하야藥效가偉大한
樋屋奇應丸은오랜傳統을近代科學化시긴臨床醫學을通俗的으로家庭에薦勸하는育兒의金字塔이오小兒助命의金鞁입니다
主効 보채는애, 회배, 신열, 기절, 경풍, 齊便, 下痢, 夜啼, 손님, 홍역, 胃腸虛弱, 其他虛弱한小兒
小兒良劑 育兒之友 新聞名記入申込
樋屋奇應丸
大阪天滿 本家 樋屋合資會社

金ㅅ 石金 高價買入
(德) 京城府明治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平壤府旭町二三 平壤出張所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六十個所派出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胃腸病에 虛弱體에
サロミン
三十醫學博士實驗推獎
豊富한비타민, 엔지ㅡ므에强力한消化酵素를加함, 大畜胃腸强壯劑로써또新築發劑로써斯界의實用을博得하고잇는所以올시다
應用 食慾不振 消化不良 胃腸カタル 虛弱体質 榮養不良 結核体質

昔も 今も
效能で賣れる (효능으로팔이는)
七ふく ひえぐすり (시찌후꾸 히에구스리)
効 上氣를引下하고便通을살하
能 梅毒其他諸毒을除함
藥價 一週分卅五錢 三週分一円卅錢 一週分五十錢 五週分二圓 ▲送料十錢海外四十二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二 電南七三九

投網 조흔그물 낙시제구
새잡는그물 二間二圓 其他各種낙시제구 새잡는끈끈이
吉備商會 京城本町三丁目 振替京城四三二八

두통과치통에 一노진

最近고무價趨勢 (三)

協定內容은 至極詳細한것인데 고무栽培의 投機를防止키爲하야 年產一割以上의 栽培를不許한것과 期間中新樹의 植付를禁止한것과 輸出의 制限性을嚴守하는點等이 本協定의 特徵이다

고무의 消費高는 年年增加하야 가는것이 統計의 示한바로 年年新用途가 開拓되는同時에 需要의 消費도 增加되엇다 昨年의 消費高는 八十一萬八千餘噸으로 其中半分은 米國에서 消費되고 殘餘半分이 各國의 消費임으로 米國의 消長은 고무界의 消長과 重大關係가 잇다 米國에 다음은 英國과 日本及佛國이오 昨年은 고무製品輸出旺盛으로 日本은 第二位에 位키에至하얏다 主要消費國의 消費高를示하면 如左하다

×

過去三個年世界고무消費高

國別	一九三一年	一九三二年	一九三三年
	噸	噸	噸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加奈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伊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耳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그리고 고무用途는 自動車다이야 用이 第一位로 米國과 如히 消費量의 約八十％를 占하고잇다 今年의 消費高는 大體米國이 五十萬噸、英國八萬五千噸、其他二十六、七萬噸 日本六萬五千噸 進行의 消費로되어 今年中의 總消費는 九十萬噸乃至九十一、二萬噸이 豫想되며 고무協定의 基本額은 九十九萬六千噸임으로 特히 制限委員會의 六月以降의 輸出可能量은 六、七月十割、八、九月九割、十、十一月八割、十二月七割이되어 大體今年中의 需給關係는 大體均衡을得할듯하다

×

朝鮮의 고무工業이 今日과 如히 發達한것은 過去十個年間의 當業者苦心의 結晶으로 今日約六百萬圓의 固定資金을 投資하야 六千萬足의 고무靴의 生產能力을 가지고는 잇스나 實際는 二千五百萬足 七百五十萬圓가량의 生產이다 고무靴以外의 生產은 거의 업고 大部分消費의 다이야 類의 生產이 업슴으로 고무消費量에 相當히 重大한關係가 잇다 二千五百萬足의 고무靴生產에 對하야 年約四十萬乃至五十萬封度의 生고무의 輸入이 잇서 大部分은 英領馬來半島와 蘭領印度로부터 輸入되고잇다 今年도 市勢의 騰貴는 잇섯스나 本是五十萬封度의 需要는 確實하듯하다 六千萬足能力이 完全히 操業되는 때는 百五十萬封度以上의 需要가 잇슬터이나 數年間에는 到底히 그러한 現象은 업슬것이다。(終)

朝鮮農家生產額 昨年五億三千萬圓
比前年三千七百八十萬圓增
農村購買力增進?

昨年中 朝鮮農家의生產價額이 다음과 가티 增加함을 가지고서 朝鮮農村購買力의增進으로 當局者는 보나 果然그처럼 實際에잇서 朝鮮農村의 購買力이 늘엇슬가 다시말하면 表面에나타난 統計的數字와가티 朝鮮農村의 實際的事情에 合致되어잇슬가 함이 가장 關心을 갓게한다

【總督府農林局調査】 昨年中 米麥 雜穀 豆類의生產價格은 總計五億三千五百九十一萬三千六百六十二圓으로 前年에比하면 三千七百八十一萬八千七百五十八圓의增加인데 그內容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圓)

	昨年	再昨年
米	[illegible]	[illegible]
麥	[illegible]	[illegible]
雜穀	[illegible]	[illegible]
豆類	[illegible]	[illegible]

增加로觀測되다 이와가티 增加된主因은 米의千八百餘萬石이라는 未曾有의大豐作으로 因한것이다 그리고昭和六年의生產價格은 四億七百萬圓에 不過함으로 昨年의 그것은躍進的狀態라고할수잇는 一面農村이 購入한物資가 昨年은再昨年에比하야 二三割가량이昂騰한 結果購買力增進의統計的事實을 나타내인것이다

米穀對策無差別說
拓務省에서 樂觀
米調特別委員會十一日完了

【東京電話】 米穀調査會特別委員會는 今日까지의會議에서 政府提出의 參考案八件中六件의 審議를 終了하고 十一日에는 所謂顧問會案인 二件을 議題로 質問한後 大體同日로써 一般討議를맛치고意見의發表를 하기에 至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意見發表後는 直時從前同樣小委員會를 設置하야이에 審議를 附託할順序인데 本委員會로서는 專門家의會合이라 論議는 米穀對策樹立의核心에 觸하야 難問題의解決에 一步를 進할것으로 米穀事情은昨年과同樣의 感이잇고問題의朝鮮米도 來十一月十一日의第二次收穫豫想에잇서는 『平年作以上』이라는 第一次豫想數量보다 減少할것이 明瞭하야 恒常虐待밧던 外地米의 統制問題도意外平穩裡에 解決되고 決코差別待遇云云의 條項을 含치 안는 具體案을 得할것이라하야 拓務省은 樂觀하고잇는바 小委員會는 大體十一月한달동안을 要할모양이라 한다

米穀統制와 具體案考究
明日米研委員會

米穀研究會에서는 十一日午後五時부터 銀行集會所에 第二回委員會를열고 第一回委員會에繼續하야 米穀統制問題에關한具體案을맨든다고한다

市中金價低落
倫敦과依然逆行

倫敦金塊市勢는 十日入電은 七磅二志九片으로日貨換算一匁十四圓七十五錢으로 續騰步調임에不拘코 京城市中金價는賣十一圓八十錢、買十一圓六十錢으로 前日보다各二十錢低로依然逆行步調를 示하얏다。이는政府金買上價 引上이 實現되지안흔 失望에依한 것이라겟는데 이제十日現在一匁의 金價內外差를示하면 如左하다

倫敦 十四圓七十五錢
日銀 十一圓六錢二厘五毛
朝銀 十圓九十八錢七厘五毛
市中 十一圓六十錢

即倫敦金價에比하야 日銀은三圓六十八錢七厘五毛의 低位이오 朝銀은 三圓七十六錢二厘五毛의低位이며 市中은三圓十五錢의 低位에잇다

人造纖維工業 調査研究計劃

纖維는 日本에서는 實用時代라하기보다는 차라리 調査研究時代인바 總督府殖產當局에서는 이 趨勢를 察知하고 早晚間 需要時代를 現出하리라고 觀測하고 人造纖維工場設立의 可能性이 濃厚하다는 豫想으로 此種工場의 設立을 誘致하고 또便益을 與하려는 意圖에서 明年度부터 中央試驗所에命하야 朝鮮內主要工業地의 水分析을 식히기로되엇다 即人造纖維의 製造工程에는 他條件보다도 水量並質이 重要한要素로 一噸當의 製造에는 五、六千石을 要하고 質로서는 鐵分을 含有치안흠이 조흠으로 果然 朝鮮의 水가 如斯한 條件에合致한가엇던가를 大大的으로 또 系統的으로 調査를 開始하기로되엇다

新米出盛期압두고 各地米價一齊反落
月初보다正米六十錢低

日本米作 未曾有의凶作豫想으로 午後의 第一回豫想高發表에伴하야 米價高는 絕頂에 達하야 朝鮮內各地正米도 天井不知의暴騰을演하더니 三日에發表된 第一回朝鮮米收穫豫想은 昨年보다는 減收나 平年作以上의 意外多量인一千六百七十萬石이엇슴으로 이로써米價의 騰勢가 挫折되며再來六日에는 政府米百萬石 買替決定이잇섯스며

一、新米廻着이 激增되어所持側이 警急하는것
一、出盛期를 압두고買方의高價警戒가 嚴重한것
一、定期市場도 大體에잇서更히 氣力이업시 反落되는 現狀에잇는 것

等으로 反落步調에 入하야 今十日도 釜山、大邱、群山等 모다落調이엇는바 이제 月初와 各地正米高價와 十日價의比較를示하면

		月初高價	十日現價	比較
京城	三等	二八·六〇	二八·一〇	五〇低
仁川	三等	二八·六〇	二八·一〇	五〇低
釜山	三等	二九·四〇	二八·八〇	六〇低
大邱	三等	二八·五〇	二八·〇〇	五〇低
群山	三等	二八·四〇	二八·三〇	一〇低
木浦	三等	二九·〇〇	二九·〇〇	不變
鎮南浦	三等	二八·〇〇	二七·四〇	六〇低

以上과가티 大體로떠러젓스며 十日仁川正租市勢도 改良種七錢七厘五毛 在來七錢六厘五毛로各五厘의反落이엇고 京城市中韓白米市勢는 標準價는二十六圓十錢이라한다

朝鮮船運賃 現狀維持?
協定까지波瀾豫想

朝鮮米冬節運賃協定은 來十四日부터 釜山의 米穀大會를 機會로 兩者代表가 會商協定키로되바 이번의 會商은 日本內地 朝鮮間主要五間의取引方法改善問題가 擴頭하고 그解決에는 相當한時日이 걸닐것임으로 運賃의本協定은 每年度協定運賃은 海運界가 繼續하야 活況을 呈하고 十日現在若濟標準石炭運賃은 前年同期에比하야 三割高의二圓五十錢唱으로 備船料도 亦是平價年標準料金이다(以下單位錢)

	今年	昨年
三千噸型	三、六〇〇	二、六〇〇
四千 同	三、五〇〇	二、三〇〇
五千 同	三、四〇〇	二、二〇〇

으로小型船二割八分 中型船五割인대 各各前年보다 昂騰하야 結局九十圓現狀維持가 最惡의境遇는 百圓을突破할모양이라고한다 本內地 朝鮮荷主는 運賃의 結局 京城에도 解決키 어려움으로 協議케될것이다 그럼으로 十一月一日의 更改期로부터 實施는前例와가티 困難視하는바 今週內에 解決키

米日爲替少高
【十八日九日發聯合】 九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하야 賣二十八弗七十五仙 四仙高 買二十八弗七十二仙 三仙高

▲東京爲替(十日)
對米 賣二十八弗八分七 買二十八弗十六分十三
對英 賣一志二片 買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十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十一 買二十八弗八分七
對英 賣一志二片十六分一 買一志二片十六分一

六七年產米 殘部도拂下

【東京電話特電】 이번의拂下로 政府所有米의六年產米殘部 十一萬石 七年產米五十萬石이되바 이것은 新米廻着期를 압두고 市價의昂騰을 避키爲하야 政府에서 白米化하야 移出地內消地等에 拂下키로 決定하엿다

出超額激減
◇……今月上旬貿易

【東京電話聯合】 大藏省發表에依하면 十月上旬全國對外貿易槪算은 알에와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五七、三五九
輸入	四九、〇八一
合計	一〇六、四四〇
出超	八、二七八

入超累計 一月以後 九四、六八四

▲註=別項의今月上旬出超를 九月下旬의 出超一千百三十萬圓에比하면 八百萬圓의激減이다

朝鮮將來 鑛、工、農業
▲朝銀中野氏談

朝鮮銀行東京總裁府主事中野正水氏는 三日에入京하야 朝鮮內各支店을 視察한뒤滿京中인데 十一日夜 新京에서 中國視察中의加藤總裁를 맛나가지고大連까지同行할터인데 同氏는 朝鮮內視察의 結果에對하야 알에와가튼感想을 말한다 各地視察의結果 今後朝鮮은鑛業、工業、農業의三者가 鼎立하야發展할 可能性이잇다 滿洲事變後 日本內地의事業家는모두 滿洲投資를하라고實地視察의 結果治安關係等으로對滿投資의 時期尙早로 朝鮮에머물너서 朝鮮投資에轉換하라는傾向이顯著하게되엇다 더구나 朝鮮의工業은 將來에期待되는點

(一)電力統制의完成 不遠한點
(一)따라서日本內地에比하야 電力料가 低廉인點
(一)工場敷地가 容易히 손에들어올수잇는點
(一)工場法의施行이업는點
(一)水質이 조흔點
(一)鑛物稅가 實施되어잇지 안흔點
(一)勞働賃銀이 低廉한點

等의諸事情으로 于先纖維工業이 急速한發展을보게될것이다 다만 遺憾은 銀行、東拓、信託、金組等으로構成된金融系統이 不自然한狀態에잇서 서로各各分野를侵害하는것으로 이것은漸次整調될것이라고생각한다

正租檢查 規則決裁
政務總監答電

朝鮮內正租檢查規則은 完成되엿슴으로 그決裁를 渡東中의 今井田政務總監에게求하엿는바 그回答이 업서 發表가 遲延되엇다함은 昨報한바이어니와 九日夜에 東京으로부터 政務總監이 그대로決裁하엿다는 入電이잇섯슴으로 十二三日中에 發表키로되엇고 그實施는 內定한대로 今二十日부터이라고한다

朝信 金錢信託 不動產金融 進出로 普銀의威脅相當

朝鮮信託會社는 朝鮮內各信託과 吸收合倂을 進行하야 目下에는 釜山의會社가 남엇슬뿐이며 이를따라서 朝信의業務範圍가 相當히擴大되는바 그中에잇서 金錢信託과不動產金融의激增되는터이다 그래서市內普通銀行은 以上과가튼朝信의進出로 去來處를 빼아끼는威脅을一層늣기게되야 普銀에서는 朝信의金錢信託과 不動產金融에對하야 不滿을갓는 傾向이잇다

一層監督을嚴重
理財課當局態度

朝鮮信託會社가 最近短期의貸出에서 漸次長期不動產金融으로 進出하야 銀行方面의貸出과 接觸케되엇슴으로 相當히問題가되엇슴에 鑑하야 總督府當局에서는 朝信의長期金融에對하야 一層監督을嚴重히하고 金融系統의 整調에 힘쓰기로되엇다고한다

商工界消息

▲工業大會講演=今月十五、十六의兩日京城公會堂에서열닐全鮮工業大會에는 全朝鮮各地에서 參集하는사람이 約三百五十名에 達할豫定인데 第一日은 會議後午後三時부터記念講演에移하고 大阪帝大敎授工學博士鉛市郎氏의 『化學工業의日本內地滿洲及朝鮮地位』이라는 講演을하기로되엇다

▲朴商會開業=米國實業界에서 活動하다가 도라온 朴璋淳氏는 綢緞布木과 最新洋服商의 朴商會를 日前에 開業하엿다고

▲北鮮物產商會=京城南大門市場內에 北鮮物產商會가 開業되엿는데 그營業種目은 生鮮各種、乾魚各種 馬鈴薯菜蔬穀物其他라고

取引停止

▲京城府本町三丁目九九番地食料品商今坂隆豊商店 ▲京城府京町一丁目一番地早崎鐵工所小澤甚市 ▲京城府樂園洞一三八番地德市 ▲京城府禮智洞二六의一號金光堂印刷所玄光玉

商況 (十日)

株式 後場引際上進

前場保合 寄付는稍強이엇스나 閑散裡에趨勢되다가結局 東新百三十六圓五十錢、大新八十八圓七十錢 日產百十八圓六十錢 朝新二十九圓八十錢 安取七圓五十錢 商人百六十七圓二十錢에保合大引

後場小高 後場는 出超減이나 强調로東新百三十六圓九十錢에四十錢高 日產百十九圓에四十錢高 大新八十八圓九十錢에二十錢高 安取七圓二錢에各寄付後一段高로大引

少强後또弛緩 結局保合而已

在滿機構問題 去益重大化에伴한 政局不安의 嫌氣賣物로 昨後場은 東新百三十五圓臺、日產百十七圓臺、大新八十七圓臺로 一齊低이엇지만 도例에依하야 押目買物로 更返大引되는等 [illegible]

訪佛中의유고슬래비아皇帝가 凶漢에게被殺되어 歐洲大局形勢의 念慮가잇섯스나 이에對한 株式市場人氣는 歐洲關係는 日本에잇서는 對外關係緩和로보는 實物도 散見되어 東新百三十七圓臺、日產百十九圓臺、大新八十九圓臺로強調이엇지만 그것亦是瞬間이오 市勢는 依然갈팡질팡의小往來에止하야 結局昨後止와거의同價로 大引되엇섯슬뿐이다。

出超減도無響 自重만甚할뿐

臨時議會待도 玉關係의不透明이繼續되어 採合입勢이고 上旬貿易에나 어덕거리를 잡을가하얏는데 前月下旬보다 三百萬圓減인 八百二十餘萬圓의出超이엇다。出超는 輸出增盛期에잇서서 如斯한出超減은 조흔일이아니오 貿易前途에對한 念慮가더생긴모양이나 後場은出超減도 亦是無響이오 同調整寄付이엇는데 前途許多한問題가 起伏한때문에 市勢에對한 發展未定으로 仕手의自重을一層甚케할뿐이엇다。

今日財界 (十日)

米 (單位錢)	今日出來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仁三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標準米一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一斤 價 在來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一圓八十錢	十一圓六十錢
銀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出來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出來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物	[illegible]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東新(賣) 小林三〇〇 金光二〇〇 山口 [illegible] ▲日產(賣) 小林 [illegible] 金光 [illegible] [illegible]
▲大新(賣) 小林 [illegible] 金光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七四〇枚

▲日立紡績 ▲福井人絹 ▲滿洲세멘트 ▲에다파이 ▲第二에다파이 ▲人造羊毛 ▲南海 ▲麵粉新 ▲新興人絹 ▲京阪四新 ▲合同毛織 ▲大阪製鋼新 ▲東亞殖產 ▲大同產業 ▲帝麻新 ▲土佐세멘트 ▲國光레온 ▲大分세멘트新 ▲東洋레온新 ▲東滿팔프 ▲岸和田 ▲人絹 ▲山陽工作新 ▲旭紡 ▲日滿製麻 ▲日滿아루미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 金利의 轉調와 環境高를 入하야 人氣強堅하고 內國債는 一、二回四分利가 十錢高이엇스며 佛貨도 十錢高로 强堅하얏스나 寄로 米作價가 過高된警戒로 六分半七十錢低 五分半一圓低로 軟化되엇다

甲 五分利	[illegible]
一回四分利	九八、六〇
二回四分利	九八、六〇
佛貨四分利	一八四、四五

市場六感

株

歐洲는 大動亂、勃發의소리까지 잇서 風雲이 險惡▲市勢는 好惡影響共無로 依然一高一下의 保合而已▲『자고나도 맛찬가지』다고 場人이 歎息할뿐▲『올를듯떠러질듯 언제까지 이모양이겟소』하고 六感子더러 물엇지만 할對答이 업스니 딱한노릇▲市勢는 不動하는 때 만달어도 소용업스니 當分休養함만 不如▲정아락가워하는 사람에게 한마되하자면▲여

米

三百餘丁의暴騰을 告한 市勢로서 可驚할 간은材料의 後援이 업시는 活氣한 上市勢가 當分은 維期이나▲嫌氣投의 一幕이 단단히 잇슬것이라 假定하고 小掬的으로 戾賣나하라할가? 反動落이 업시 八十丁低落에 止할뿐으로 因而底迷▲大阪市勢의 步調가 容易히 滑落을 許하지 아니하는것을 보면 結局鳥瞰一途박게 업는모양▲今回政府米百萬石拂下는 軟派의 唯一한 標榜材料라 할수 잇엇스나 最低公定價格의 二十九圓三十五

鎖說은 또한硬派의 當當한 强材▲日本內地米의 拂下는 朝鮮米界에 何等의 影響을 及하지 안코 [illegible]

期米 鈍重裡에 强調

前場底堅

昨後場阪地二十八圓九十四錢止와 共히二十六圓十錢에寄合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八圓八十九錢인 五丁低落을 嫌하야 二十六圓〇九錢인 一丁低로 寄付 開始後阪地九十七錢으로 反發하엿다가 [illegible] 結局阪止九十三錢과共히 十三錢에 底堅이 止하다

後場强調

後場은 二十六圓十三錢에 同價寄付後 二節十錢이엇스나 三節十七錢에 强騰、四、五節十九錢으로 別無가리止場하다

公定價格注目 最低廿九圓臺?

今年度日本米作第一回豫想은 五千七百餘萬石으로 第二回豫想은 關西風災의 被害로 五千二百餘萬石박게 아니되리라고한다 그數字는 아즉 預測할수업스나 五千二百萬石으로 假定한다면 昨年보다 二割六分 今年의 生產費는 昨年보다 二割六分의 減收이며 [illegible] 九年度產米의 最低公定價는 昨年度最低公定價格인 二十三圓三十錢보다 二十九圓三十五錢에 該當할으로 政府는 六圓程度以上으로 最低公定價格을 定하리라는 說이 此가 實現되는때는 又復數段高價를 豫期할수잇스나 當局의 保勢를 十分傍觀하며 政府의 態度如何와 市勢의 動向如何를 딸아 買占하는것이 良策이 아닐가한다

興味視할當限 一波瀾難免?

二十九圓三十錢까지 奔騰하엿든 當限 政府米의 拂下로 依然軟化하야 二十七圓七十錢까지 反落하엿섯다 그러나 今回의 百萬石拂下는 朝鮮에는 何等의 影響이 업고 도로혀 日本內地의 凶作으로도 朝鮮米의 先約買가 盛行할뿐아니라 日本內地의 秘川이 旺盛하야 品貴를 告하게되면 今日으로도 當限의 渡米蒐集도 또한 問題일것갓다 昨今賣買兩方의 陣營을 窺하면 買方으로는 有力側인 力武의 [illegible]

十一日後場休會

十一日은 仁川神社祭日인대 例年은 前後場共休會하엿스나 今年은 前場은 立會하고 後場만 休會하기로 朝取仁川支店은 發表하엿다

朝鮮期米取組高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大邱續落

出盛期接近으로 買方의 高價警戒가 嚴重하고 賣物이 [illegible] 一等白米二十八圓七十錢 [illegible]

堂島前場底堅 【大阪電】

買方의 遠慮와 東京別派西側 [illegible] 底堅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變

天候恢復으로 氣引立치안코 頭重保合인 ㊤三等二十八圓一〇 四等二十七圓九五 一等白米三〇、〇〇

仁川保合

定期伸悩로 買人이 躊躇하야 大體保合인 ㊤三等二十八、一〇 四等二十七、九五 一等白米一一、七〇

南浦瓦落

天候恢復으로 新米의廻着이 激增되엇슴으로 所持의 態度가 樂觀的으로 賣急함으로 一氣로 五十錢瓦落인 ㊉三等二七、四〇 四等二七、二〇 一等白米一〇、八〇

群山保合

出廻九、二事 定期 [illegible] 不拂底로 新規商談이 不振하고 取引閑散裡에 保合인 ◇三等二八、三〇 四等二八、二〇 一等白米一一、〇〇

木浦下落

定期伸悩는 勿論 出盛을압두고 買方이 모다 氣迷하야 賣惜으로 弱氣는 [illegible] 三等二九、〇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一一、六〇

釜山弄落

出廻二千五百俵 環境不立으로 低價買狙임으로 大日商談이업고 特히新米豫想하고 所持側이 幾物對加를 [illegible]

金融 (十日)

海外爲替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illegible]

米穀 (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illegible]

商品 (十日)

京城綿糸布市況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illegible]

大豆粕市況	
[illegible]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illegible]

滿洲產況	
[illegible]	[illegible]

綾羅河價	
[illegible]	[illegible]

株式 (十日)

朝取短期	前場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illegible]

期米 (十日)

朝取期米	
[illegible]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illegible]

商品 (十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illegible]